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8

4 讲义 59

5 퀴즈 79

6 토론 82

7 자료 84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습안내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

01 과목소개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은 한국의 고전 가운데 6종의 문헌을 선정하여 저술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고급 교양 강좌이다. 6종의 고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헌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헌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도록 기획하였다. 각각의 문헌마다 2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각기 고전의 저자, 저술 배경, 의의 등을 소개하는 '이해'와 고전의 본문을 강독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읽기'로 구성된다. 6종의 문헌을 다룬 강의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수강생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일부 문헌만 학습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2 학습목표

(1) 한국 고전의 이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2) 한국 고전의 감상을 통해 고전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기록문화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얻는다.
(3) 한국의 고전을 매개로 삼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및 출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는 한국의 고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내용과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6종의 고전 가운데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헌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교양을 얻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문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강좌에서는 《양화소록》, 《경민편》, 《연병지남》, 《한경지략》, 《만국사물기원역사》, 《한국통사》의 6종의 고전을 각기 2주씩 강의한다. 이들 고전은 화훼 재배와 감상, 백성의 교화, 병법, 풍속과 문화, 백과사전적 지식,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이 그 저술 배경과 저자 등에 대한 지식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감상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04 주차별 구성

1주차	《양화소록》의 이해
2주차	《양화소록》 읽기
3주차	《경민편》의 이해
4주차	《경민편》 읽기
5주차	《연병지남》의 이해
6주차	《연병지남》 읽기
7주차	《한경지략》의 이해
8주차	《한경지략》 읽기
9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10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
11주차	《韓國痛史》의 이해
12주차	《韓國痛史》 읽기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주차 양화소록 읽기

2-1 국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에서 한국 원예와 분재의 고전인『양화소록』의 강의를 맡은 이종묵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강희안의'양화소록 읽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강희안의『양화소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양화소록에서 꽃과 나무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꽃과 나무를 키우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양화소록은 17종의 꽃나무와 괴석을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그중 국화, 매화, 백일홍, 철쭉, 괴석 이 다섯 종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화소록에서 확장하여 조선 시대 문인이 이들 다섯 가지 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파리의 기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파리에 가시면 꼭 들러보아야 할 박물관입니다. 김홍도가 그린 풍속도가 상당히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김홍도의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김홍도의 화풍에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전문가의 말로는 김홍도가 직접 그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그림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선비들이 마당에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만절쟁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만절(晩節), 곧 늦은 가을철, 승경도 놀이를 한다는 뜻입니다. 승경도는 판에다 벼슬 이름을 적어 놓고 주사위를 던져 이르는 곳에 따라 승진하기도 하고 좌천하기도 하며 때로는 유배를 당하기도 하는 놀이판입니다.

이 그림은 조선 후기 제법 사는 집의 후원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여럿입니다. 홰나무처럼 보이는 나무가 우측에 있고, 그 아래 비둘기 네 마리가 앉아 놀고 있습니다. 18세기 무렵 한양 도성에는 비둘기를 기르는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태종실록』에 보면 사신으로 온 일본의 승려에게 비둘기를 선물로 주었다는 기록이 보이며, 16세기 박영이라는 사람은 비둘기를 좋아해서 17세에 요동에 가서 비둘기를 구입해 왔다고 합니다. 실학자의 한 사람인 유득공은 발합경이라는 비둘기 사육과 관련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의 벗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비둘기 매니아가 폐해가 크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당시 한양을 그린 그림「성시전도」를 보고 쓴 시에서는 수십 종이 넘는 비둘기가 나옵니다.

또 그 아래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붉은 괴석을 화분에 올려놓은 화분도 둘 보입니다. 그 가운데 석류나무가 있습니다. 석류나무는 양화소록에서 다룬 품종입니다. 석류는 꽃을 보기 위한 것은 꽃석류 혹은 해석류라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것은 안석류라 하는데 제법 큰 열매가 열립니다. 요즘 보는 것은 모두 안석류입니다. 이 그림의 석류 역시 안석류입니다.

석류가 괴석 사이에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석류의 석이라는 글자가 돌이거니와 석류는 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시대 석류의 품종도 반송처럼 둥그스름한 것도 있고 향나무처럼 구불구불하게 두세 층을 이룬 것도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 문인들이 가장 사랑한 꽃은 국화와 매화였습니다. 먼저 양화소록에서 자세히 다룬 국화부터 보겠습니다.

국화는 군자의 꽃이기도 합니다. 18세기 문인인 이정보가 "국화야 너는 어이 삼월 춘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꽃은 대개 봄에 피는 데 비해 서리가 내린 이후에 꽃을 피운다 하여 그 기상을 높게 본 것입니다.

이정보는 영조 때 대제학을 역임한 이름난 문인인데, 시조를 무려 78수나 남겨 한국문학사에서도 이름이 높은 분입니다. 시조에도 국화나 매화가 무척이나 자주 등장합니다. 이정보의 시조에서는 국화의 특징으로 오상고절을 들었습니다.

오상고절은 중국 송나라의 이름난 문인 소동파의 시에 "연꽃은 시들어 비를 받칠 덮개가 사라졌는데, 국화는 시들어도 서리를 이기는 가지가 있네."라고 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가을이 되면 연꽃의 그 커다란 잎은 말라 시들지만, 국화는 서리를 맞고 느지막이 꽃을 피웁니다. 서리를 이기는 고고한 절개가 돋보인다고 칭송했습니다.

또 국화는 노란 꽃의 대명사이면서 동시의 유학에서 지향하는 중정의 꽃입니다. 국화는 불편부당한 군자의 꽃입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군주의 한 사람인 정조는 1786년 규장각의 검서관을 선발할 때 노란 국화를 가지고 시를 짓게 하였는데, 불편부당한 중정의 뜻을 가진 선비를 뽑고자 한 뜻을 국화에 담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황제의 복식이 황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국화를 사랑하는 또 다른 뜻은 국화의 실용적인 약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화소록에서도 국화가 몸을 경쾌하게 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하며 머리와 눈을 맑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국화는 조그마하고 노란 감국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감국을 말려 베갯속으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불면증에 좋다고 합니다. 중국의 국담은 백수를 누리게 하는 샘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화는 봄철이면 여린 잎과 줄기로 나물을 해 먹고, 여름이면 매운탕을 끓일 때 넣기도 하며 가을에는 국화떡을 해 먹고, 겨울에는 국화를 말려 차를 만들기도 하고 술을 담그기도 합니다. 먼저 국화차를 보겠습니다.

실학자 이규경이 편찬한 오주연문장전산고라는 책에는 국화차를 만드는 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규경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이덕무의 손자인데, 그가 편찬한 오주연문자전산고는 조선시대 백과사전 중 가장 방대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국화차를 만드는 법을 이렇게 소개해놓았습니다.

감국의 꽃송이가 반쯤 벌어졌을 때 따서 푸른 꽃받침 껍질을 떼어내고 끓인 샘물을 꿀에 타서 마시면 달다고 하였고, 또 꽃이 이미 피었을 때는 꽃받침 껍질을 제거하고 꿀에 버무려 축축하게 한 다음, 녹말가루에 굴리고 끓는 물에 넣어 열기를 잠시 쐰 다음 꿀물에 타서 잣을 띄워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중양절에는 국화꽃으로 떡을 쪄 먹기도 하고 전을 부쳐 먹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자국회라고도 불렀습니다.

정조를 도와 개혁정치를 이끈 채제공은 이렇게 회상한 바 있습니다. "3월 삼짇날이나 9월 중양절이면 바람이 자고 날씨가 따스한 날을 골라 집안의 부녀자들을 이끌고 솥을 가지고 가서 벼랑의 바위에 앉히고, 돌 틈의 들꽃이나 국화를 꺾어 익혀 떡을 만들어 먹고 쑥국을 끓여 반찬으로 삼았다. 희희낙락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거움이 끝이 없었다."

가족의 소풍에서 국화떡이 한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채제공의 집은 명덕동 지금의 장위동에 있었는데, 지금 북서울꿈의 숲이 가꾸어져 있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 살던 채제공이 여성을 위해 소풍을 갔고, 이때 먹은 음식이 국화떡이었습니다.

국화는 나물로도 만들어 먹었는데 황화채라고 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가을에 감국의 꽃을 따서 꽃받침과 꽃술을 제거한 다음, 나무로 된 소반에 늘어놓고 깨끗한 물로 살짝 씻은 다음 송엽주를 이슬이 묻은 듯 살짝 적시고 녹두 가루로 꽃 위에 뿌려서 꽃잎을 바른다. 냄비에 물을 붓고 약한 열기로 데쳐서 건져내는데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한다. 다시 꽃잎을 하나하나 찬물에 담갔다가 건져내어 식초를 타고 맛을 내는 여러 재료를 섞어 먹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양화소록에서 국화의 미덕을 주로 중국 문헌을 통해 설명한 바를 이렇게 부연해보았습니다.

양화소록에는 다양한 국화를 재배하는 실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양화소록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앞서 본 기메박물관의 그림에는 노란색의 국화와 붉은색의 국화가 나란히 화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화소록이나 이를 수용한 산림경제에는 여러 색깔의 국화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의 화분에 함께 섞어서 심어도 좋고, 화분이 작으면 하나만 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산림경제는 홍만선이라는 18세기 전후 시기 활동한 학자의 저술인데, 앞에서 소개한 임원경제지에 앞서, 지식인이 산림에 은거해서 살아가는 경제의 방법을 적은 책입니다. 여기서 경제는, 오늘날의 경제(economy)와는 뜻이 조금 다른데,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이 책 역시 강희안의 양화소록을 계승한 것이라 할 만합니다.

국화 뿌리가 내리면 거름을 주어야 하는데, 산림경제에는 도랑의 기름진 흙을 가져와 돌이나 기와 조각을 가려내고 빻아서 말린 다음, 쪄서 참깨 깻묵을 섞어 화분에 넣으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벌레가 생기지 않으며, 누렇게 변한 잎이 생기면 부추의 즙을 내어 뿌리에 부어 주면 푸르게 회복된다는 비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햇볕을 너무 받으면 잎이 누렇거나 붉게 변색 되고, 비를 너무 맞으면 잎이 시커멓게 시드는데 이때 이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화는 꺾꽂이를 하면 되므로, 화분에 빽빽하게 꽂고 그늘진 곳에 두고 천천히 물을 주면 됩니다. 화분은 질 화분이 좋고 꽃이 피면 고급스러운 도자기 화분으로 옮겨도 됩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 문헌에는 삼색국이나 사색국, 혹은 오색국이라 한 국화가 제법 보입니다. 양화소록에서는 황색과 백색의 두 국화를 각기 그 한쪽 껍질을 벗겨내고 삼 껍질로 그사이를 합쳐놓으면, 꽃의 반은 황색이고 반은 백색이 된다고 했습니다. 접을 붙여 여러 가지 색깔의 국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18세기 문인 이옥(李鈺)이 저술한 백운필(白雲筆)에는 옻칠을 한 듯 검은 국화를 만들어 파는 노인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 시기 한양에서는 행상이 다니면서 꽃나무를 팔았습니다. 한양 사람들이 마당에 다양한 국화 화분을 두었음을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운필이라는 책에도 양화소록처럼 다양한 꽃과 나무를 재배하는 법을 적었습니다.

조선 시대 국화는 품종이 무척 다채로웠습니다. 양화소록에는 중국 문헌에서 35종이 보이는데 조선에서는 20종이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더욱 그러하거니와 조선 시대 꽃들도 외래종이 많았습니다. 강희안은 조선의 이름난 꽃은 모두 조선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고려 충숙왕이 원나라 조정에 들어가 있다가 돌아올 때 가져온 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적었습니다.

오홍, 연경황, 연경백, 규심, 금홍, 은홍, 학정홍, 소설오 등의 국화, 황모란, 백모란, 정홍모란, 낙양홍 등의 모란, 중엽산다와 같이 겹으로 꽃이 피는 동백, 중엽매와 같이 겹으로 꽃이 피는 매화, 그리고 벽도와 분도와 비도와 같은 여러 색의 복숭아, 그밖에 서향화, 청포도와 흑포도 등도 모두 당시 원나라에서 온 것으로, 조선 초기까지 재배에 성공한 것이 이 정도라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품종이 많고 또 대부분 지금은 사라진 품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꽃나무가 대개 외국에서 온 것이 많지만, 조선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흔한, 수선화나 능소화는 모두 19세기 초반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원나라 때 들어온 특이한 이름의 국화 중 일부는 조선 후기 문헌에도 보이지만 지금은 이런 국화를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에는 국화의 품종이 더욱 다양해지고, 부유한 집안에서는 앞다투어 고급 품종의 국화를 가꾸기에 이릅니다. 정약용은 가평의 어느 은자의 집에 48종의 품격이 있는 국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정약용이 살던 명례방 집에 국화 화분이 열여덟 개가 있다고 하였는데, 각기 다른 품종의 국화일 것입니다. 또 꽃을 좋아하여 화암이라는 호를 쓴 유박의 화암수록에는 황색 꽃이 피는 것이 54종, 백색 꽃이 피는 것이 32종, 홍색 꽃이 피는 것이 41종, 자색 꽃이 피는 것이 27종이라 하였으니 이를 모두 합하면 154종에 이릅니다.

유박의 화암수록이라는 책은 작고한 이상희 장관이 가장 아끼던 책으로, 이 책을 사기 위해 몇 달치 월급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상희 장관은'꽃으로 본 한국문화'라는 꽃에 대한 책을 3권의 방대한 규모로 저술한 바 있습니다. 그가 자료를 발굴하고 또 저술을 직접 하여 우리나라 꽃의 문화사가 더욱 밝아졌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유박이 살던 영조 연간에 국화가 154종이었다 하니 놀랍습니다.

또 추사체를 만들어낸 대학자 김정희는 당시 유행하던 국화가 무려 163종이나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163종이나 되는 품종이 많기도 하건만, 끝내 학령이 여러 국화 중에 첫째라네. 무너진 담벽에서도 훤한 안색 돋보이니, 가을바람 흰 이슬에 뜻을 얻은 것이라지."라 한 바 있습니다.

100종이 훨씬 넘는 국화 중에서 18세기 이래 조선의 문인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품종은 학령이라는 품종이었습니다. 18세기 이래 조선에서 유행한 새로운 국화 중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것도 있었는데 특히 백운타가 유명했습니다. 학령이나 백운타 모두 꽃송이가 크고 하얀 최고급 국화였습니다. 백운타는 원래 신라국이라고 불렸는데 조선 시대 사라졌다가 일본에서 유사한 품종이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양화소록에는 없지만, 후대 국화를 즐기는 법을 소개합니다. 국화를 즐기는 풍류는 국음, 황국음, 상국음, 범국회, 관국회, 상국회 등으로 일컬어집니다. 국화가 피면 친한 이들과 함께 어울려 시주를 즐기는 것이 조선 문인의 풍류였습니다. 더욱 운치 있는 일은 밤중에 국화 화분을 등불 앞에 올려놓고 어렴풋한 조명을 바탕으로 즐기는 일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 하수일은 국화가 만개한 음력 10월 5일, 숙부와 손자들과 어울려 등불 앞에 국화 화분을 놓고 감상하면서 함께 어울려 시를 지은 바 있고, 조선 후기 위항의 시인 박윤묵은 등불 아래 국화 그림자를 구경하면서 "등불 아래 국화 그림자 비스듬히 기울어지자, 영롱하게 생동하는 그림이라 정말 아름답구나. 우습다, 도연명은 도리어 멋이 없었으니, 당시에 한밤에 꽃 보는 일 알지 못하였다지."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일은 진주 출신의 문인으로 경상도에서 알아주는 학자였습니다. 또 박윤묵은 정조와 순조 임금 때 규장각의 하급 관리로 일하면서 시인으로 명성이 높았던 분입니다. 시가 재미있습니다. 국화라고 하면 도연명을 떠올리지만, 정작 도연명은 국화의 그림자를 즐기는 운치를 몰랐으니 이를 비웃은 것입니다.

특히 대학자 정약용 역시 국화 그림자놀이를 오묘하게 실현한 사실은'국화 그림자놀이'라는 글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옷걸이와 책상 등 여러 지저분한 물건을 다 없애고, 국화의 위치를 바로잡은 뒤
벽에서 약간 거리를 두게 하고, 적당한 곳에 촛불을 두어 밝히게 하였다.
그제서야 기이한 문양과 특이한 형태가 갑자기 벽에 가득하였다.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꽃과 잎이 서로 교차하고 가지가 빽빽하고 정연하여 마치 수묵화(水墨畵)를
펼쳐놓은 것과 같았으며, 그다음 가까운 것은 너울너울 어른어른 춤을 추듯이 하늘거려서,

마치 달이 동쪽 고개에서 떠오를 때 뜰의 나뭇가지가 서쪽 담장에 걸리는 것과 같았다. 가장 멀리 있는 것은 흐릿하고 몽롱하여, 마치 가늘고 연한 구름이나 노을이 가물가물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득한 파도가 갑작스럽게 번쩍번쩍 분간하기 어려운 듯하였다.

옷걸이와 책상 등 여러 너저분한 물건을 다 없애고 국화를 벽 사이 적절한 곳에 촛불을 두어 밝히게 하였습니다. 국화의 꽃과 잎, 줄기가 거리에 따라 농담의 차이를 보이면서 한 편의 수묵화를 연출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가요? 앞서 연꽃과 매화를 구경할 때 조선의 문인들이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였거니와 여기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매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국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강세황의 무한경루청공지도라는 그림입니다. 강세황은 호가 표암인데, 문인화가로 이름이 무척 높습니다. 무한경루는 강세황이 남산에 세운 집 이름입니다. 무한한 풍경을 볼 수 있는 무한경루에서 마음을 맑게 하는 도구를 펼쳐놓은 그림입니다. 서안에 책과 붓, 벼루, 여의 등이 있고 왼편 화분에 매화가 괴석과 함께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조선 시대 문인이 지향한 서재의 풍경입니다. 이제 이 그림에 나오는 매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매화에 대한 저술로 송 범성대의 범촌매보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어, 양화소록에서는 이 책을 인용하여 매화는 우물, 곧'허물이 있는 물건'이라 했습니다. 우물이라는 말은 춘추시대 진(晉) 숙향(叔向)의 모친이 "미모가 뛰어난 여인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기에 충분하니, 참으로 덕을 쌓고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재앙을 받게 마련이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아름다운 여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매화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매화는 조선에서도 문인들이 가장 좋아하던 꽃입니다.

매화는 비스듬히 누워 성글고 수척한 것과 늙은 가지가 기괴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야 운치가 빼어나고 격조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나무에 새로 접을 붙인 것은 한 해가 지나면 여린 잎이 나와 줄기가 곧바로 위로 뻗어 자랍니다. 이를 기조라 부릅니다. 지금 매화는 매실나무로도 불립니다. 이는 매실을 얻는 이익만 노리는 것이라 운치나 격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매실나무는 땅이 너무 기름진 곳에서 자라므로 가시처럼 가지가 나고 꽃이 빽빽하게 핍니다.

매화를 그릴 때 "기조에는 꽃을 붙이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기굴하고 수척한 가지에 꽃이 듬성듬성 피어 있어야 매화의 격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덕무는 윤회매십전이라는 저술을 남겼는데 인공으로 매화를 만드는 방식을 적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지를 만들 때 계집'녀(女)'자 모양으로 교차를 해주되 가지가 위로 뻗치지 않게 해놓은 것입니다.

윤회매는 윤회한다는 뜻인데, 매화가 피면 꿀벌이 꽃가루를 먹어 꿀을 만들고, 그 꿀에서 남은 밀랍을 가지고 인공의 매화를 만드니, 매화가 윤회한다고 너스레를 떤 것입니다. 이덕무는 이렇게 인공의 매화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벗들과 한잔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판다는 문서까지 작성하여 그의 문집에 넣어두었습니다. 운치와 유머가 부럽습니다.

이처럼 자연 상태에서 매화는 기굴하고 수척한 맛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겨울에 꽃이 피지도 않습니다. 강희안이 운치와 격조가 있다고 한 매화는 인공이 가미된 것입니다. 매화 접을 붙일 때에는 먼저 화분에 심은 작은 복숭아나무를 매화나무에 걸어놓고, 복숭아나무와 매화나무의 닿는 부분의 껍질을 벗겨내고 합친 다음, 살아 있는 칡넝쿨로 단단하게 싸맵니다.

그 후, 기가 서로 통하여 껍질이 서로 붙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원래의 매화에서 떼어내는데 이를 의접(倚接)이라 불렀습니다. 화분은 반쯤 볕이 들고 반쯤 그늘이 지는 곳에 두고, 자주 물을 주면 서로 붙여놓았던 가지가 비스듬하게 누운 늙은 매화의 형상이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꽃봉오리가 가지에 붙으면 따뜻한 방에 들여놓고 더운물로 가지와 뿌리에 뿜어줍니다. 화로에 숯을 달구어 그 곁에 두어 한기를 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지 전에 활짝 꽃이 피어 맑은 향이 방에 가득하게 됩니다. 산림경제에는 잘못 관리하여 화분이 얼어 꽃이 피지 않을 때에는, 끓는 물을 병에 담아 화분 위에 올려놓는다고도 하였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 피어나는 매화를 바라보는 일은 참으로 운치 있는 일이겠지만, 실제 매화는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하면 이른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매화를 음력 설 전에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을 붙이고 방안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너무 늙어 가지가 나지 않고 꽃봉오리가 생겨나지 않으면, 양지바른 곳으로 옮겨 심어 자라는 뿌리가 뻗어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화분의 매화는 꽃이 진 후에는 한기를 쐬지 않도록 다시 움집 안으로 들여놓아야 합니다. 매실이 달릴 무렵 한기를 쐬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지 또한 말라 죽게 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하여 꽃을 피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름난 화가 김홍도(金弘道)가 자신의 그림을 30냥에 팔아 매화꽃이 핀 화분 하나를 구입하는 것에 20냥을 썼다고 하는데, 당시 30냥이면 초가삼간을 한 채 살 수 정도의 고가였습니다. 그만큼 한겨울 꽃을 피우는 매화는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18세기 문인 정극순의 「두 그루의 작은 매화」라는 수필이 재미납니다. 정극순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아 문집이 국내에는 전하지 않고,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에만 유일본으로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화 접붙이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강희안의 방법을 더욱 발전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사람이 백 가지가 서툴지만 볼 만한 것은 매화를 기르는 것이다.
매화는 맑고 고상하며 소담한 것이 꽃에 있어 둥치 자체는 다른 꽃나무와 다름이 없다.
둥치가 예스럽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칭할 수 없기에,
기이함을 좋아하는 자들이 산골짜기를 뒤져 복숭아와 살구나무 고목을 찾아 베고 잘라
그루터기와 앙상한 뿌리만 남겨놓는다.
비바람이 깎고 갈고 벌레가 좀먹은 다음에, 무너지고 깎아지른 벼랑에 거꾸로 매달리고
오래된 밭의 어지러운 돌 더미에 비스듬히 눌려, 구불구불 옹이가 생기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마치 거북과 뱀, 괴물 모양으로 된 것을 가져다가 접붙인다.
운치 있는 꽃이 평범한 가지에서 훌훌 떨어지고 나면, 그 위에 접을 붙인 다음 질 화분에 심는다.
날이 차기 전에 깊숙한 방에 넣어두는데 또 왕성한 기운이 흩어져 빠져나가
꽃을 피우지 못할까 우려되면, 작은 매합을 만들어 담아둔다.
먼지와 그을음이 절대 바깥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여 맑은 싹이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한다.
적당한 장소가 생기면 옮겨서 북돋워 주고 물을 주되 또 합당한 재배법대로 한다.
이 때문에 온 천지가 한창 추울 때가 되면 꽃을 피운다.
마치 신선이나 마술사가 요술을 부려 만들어 낸 것 같다. 아아, 신기하다.

매화는 꽃이 아름답지만 나무 등걸 자체는 보통 꽃나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등걸이 기굴한 맛을 풍기게 하기 위해서는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를 기굴한 모습으로 변형시킨 다음 매화나무와 접을 붙입니다. 그리고 방안에 작은 감실을 만들어 매화 화분을 보호하는데 이를 매합(梅閤)이라 합니다. 매화 감실 매합은 매감(梅龕), 매각(梅閣), 매옥(梅屋)이라고도 합니다.

정극순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것이라 말한 것처럼, 매합이나 매감에 대한 기록은 중국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17세기 무렵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18세기 무렵에는 매우 빈번하게 보입니다. 강희안의 시대부터는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정극순은 조선 사람의 매화 재배가 세계 최고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18세기 화가 석당 이유신의 가헌관매라는 작품입니다. 동산방화랑에 이 그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유신의 작품 중에 특히 이 그림이 주목받았는데, 그 이유는 매화 때문입니다. 눈이 내린 날 집안에 모여 매화를 감상하는 그림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한겨울 매화가 피면 벗을 불러 매화를 감상하면서 술을 마시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런 설중매를 즐기는 술자리를 매화음(梅花飮)이라고 불렀습니다. 18세기 문인 김종수는 매화음을 두고 멋진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앞서 이윤영이나 이인상과 절친한 벗인데 역시 고상한 취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풍 김씨 명문가 출신으로, 정조 임금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종2품의 벼슬 봉조하에까지 올랐지만, 젊은 시절에는 청류를 자처한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글도 무척 맑습니다.

겨울이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 날씨는 마침 춥지 않았다.
비가 내리다가 눈이 내리다가 하다가 밤이 되자 다시 달이 떴다.
누각에 올라 강을 바라보고 지팡이를 끌면서 정원을 거닐었다.
화로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웠다. 상을 마주하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
감실 안에 있는 작은 매화는 올 때에 피지 않은 꽃봉오리가 별처럼 수북하더니
돌아갈 때가 되자 너덧 송이가 꽃을 피웠다.
사흘 동안 오직 예전에 마구잡이로 한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었고,
시는 한 구도 짓지 않았으니 혹 참뜻을 손상할까 해서였다

김종수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연암 박지원 역시 벗과 함께 눈 내리던 날 화로를 마주하고 고기를 구우며 난로회를 가졌는데, 온 방안이 연기로 후끈하고 파와 마늘 냄새, 고기 누린내가 몸에 배었다고 한 것을 보면, 오늘날의 삼겹살집과 풍경이 그리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김종수의 벗 이인상은 한겨울이 되면 손님과 벗을 초청하여, 양 창자를 얹은 화로와 담요 앞의 번철을 끼고서 매화음을 갖는데, 술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가 찌는 듯 뿜어대니 모든 자리에 땀이 줄줄 흐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한겨울 피어야 할 매화가 뜨거운 화로의 불기운 때문에 시월에 벌써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 비릿한 고기 굽는 연기를 덮어써야 하니, 맑은 절조의 매화로서는 난로회가 참기 어려운 굴욕이었을 것입니다.

매화 아래 고기를 굽는 것이 그러면 차를 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선 중기 이순인(李純仁)은 "삭풍이 눈보라를 휘날려 창문을 치는데, 갈옷 입고 화로 끼고 앉아 차를 달인다. 초가삼간이라 손님에게 줄 좋은 것 없지만, 자네 이곳에 와서 매화를 보지 않겠는가?"이런 멋진 시를 외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순인은 당나라 시풍의 맑은 시에 능하였는데, 이 작품 역시 그러합니다. 외워둘 만한 작품입니다.

매화를 기를 때 지나치게 인공을 가하는 것을 두고 상당수 문인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강희안의 후손 중에 선조 임금 때 강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강항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다 다행히 조선에 돌아왔는데, 일본에 유학을 전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조 강희안의 양화소록을 꼼꼼히 읽고 양화소록에서는 매화가 자연스러운데 요즘 사람들이 매화를 학대한다고 욕을 했습니다.

강항은 곧은 둥치를 굽게 하고 긴 가지를 꺾어버리며, 사람의 키만큼 크지 못하게 하고 굵기가 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며, 비스듬히 눕도록 하여 매화의 천성이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합니다. 지나치게 빨리 꽃을 피우도록 계획을 잡고 지나치게 정성을 기울여, 질 화분에 심고 따뜻한 온돌방에 두고서는 더운물을 부어주고 화로로 덥혀, 동지가 되기 전에 꽃이 피도록 하고서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호사가들을 불러 모아서 마침내 권세가와 교제할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매화를 사랑하는 뜻이 담박과 절조에 있건만, 사람들이 신기만 추종한다고 나무랐습니다. 지금은 조선 시대보다 매화를 잘 기르지 못하니, 강항이 지금을 보면 흡족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 문인들은 앞다투어 이런 매화를 만들었으니 앞서 말한 대로 매화는'우물'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일홍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백일홍(배롱나무)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매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일홍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풍속화의 대가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전형필 선생이 공을 들여 수집한 우리의 미술품으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풍속도첩의 한 장입니다. 미술사가들이'소년전홍', 곧 젊은이가 붉은 꽃을 딴다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단에 "빼곡한 잎엔 농염하게 푸른빛 쌓였는데, 수북한 가지엔 잘게 붉은 꽃을 오려 붙였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꽃은 백일홍입니다.

젊은이가 여성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태호석을 정원에 둔 것을 보면 굉장한 부잣집이었던 같습니다. 태호석은 18세기 무렵 중국에서 수입해온 것이니 웬만한 집에서는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일홍 두 그루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백일홍 역시 당시 한양에서 키우기 어렵던 고급 품종입니다.

백일홍은 자미화라고도 합니다. 초본 백일홍과 다른 목백일홍입니다. 목백일홍이 줄어 배롱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를 만지면 부르르 떤다고 하여 파양화, 곧 간지름나무라고도 하고 나무껍질이 없어 미끄럽기에 원숭이도 미끄러진다는 뜻에서 후자탈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별칭을 생각하면 앞서 본 신윤복의 그림에서, 부끄러워하는 여인을 유혹하는 젊은이가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백일홍은 여름이면 석 달 이상 남녘땅을 붉게 장식하는 아름다운 꽃나무입니다. 백일홍도 화분에 키웠는데 지금은 화분의 백일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양화소록에서 화분에 백일홍을 키우는 법을 소개해두었습니다.

강희안은 조선 초기는 관공서에 작약만 몇 그루 있을 뿐이지만, 백일홍은 영남의 근해 지역에 많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바람과 기후가 중국보다 꽤 늦어서 음력 5월에서 6월 사이에 비로소 피고 7월에서 8월이 되어 멈춘다고 하였으니 지금과 그리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꽃은 비단같이 아름답고 노을처럼 곱게 뜰을 훤히 비추고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하므로, 도성 안 고관대작의 저택에 높이가 한 길 남짓 되는 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매실이 익을 무렵 내리는 비를 매우라고 하는데, 이때 백일홍을 꺾꽂이하여 그늘진 곳에 꽂아 두면 잘 자란다고 했습니다. 바닷가 지역에서 자라는 해죽이라는 대나무를 가지고 지탱해주되, 백양류 모양으로 곧게 만들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백양류는 잣나무처럼 줄기가 곧되 위로 갈수록 가늘게 되는 석류의 품종입니다. 화분은 와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 백일홍은 금방 피었다 지는 보통의 꽃과는 달리 여름 내내 피기 때문에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8세기 호남 출신의 실학자로 알려진 신경준은 33세 되던 1744년, 고향인 순창으로 돌아와 조선 초기 신숙주의 아우 신말주 때부터 물려받은 귀래정이라는 집에서 은거하면서, 못을 파고 그 안에 섬을 셋을 두어 기이한 바위를 모았으며, 온갖 꽃을 구하여 심은 후 이것을 순원이라 이름 붙이고 순원화훼잡설이라는 수필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저술도 양화소록이 중요한 참고문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신경준이 순원화훼잡설에서 백일홍을 두고 성찰의 공부거리를 남겼습니다.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節度)라 하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방도다.
사람의 음성이 절도(節度)가 없이 급한 소리로 외치려고만 한다면 목이 멜 것이요,
걸음걸이가 절도(節度)가 없이 빨리 달리기만 하면 땀을 흘리고 헐떡거리면서 자빠질 것이다.
못에 절도(節度)가 없으면 넘치고, 창고에 절도(節度)가 없으면 바닥날 것이다.
절도(節度)가 없는데도 끝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치이다.
꽃잎이 큰 것은 쉽게 지니 꽃잎이 절도(節度)가 없기 때문이다.
연꽃과 여뀌, 모란, 작약이 이와 같다.

신경준은 세상 만물이 무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 글의 핵심어는 바로'절'입니다.'절'은 멈출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도 절도가 있어야 하니, 절도를 알아 하나씩 천천히 피면 오래갑니다. 백일홍이 백일 이상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절도를 아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준은 백일홍으로 사람의 일을 넌지시 말하였습니다. 지나친 욕심보다 하나씩 일을 해나갈 때 마침내 더욱 큰 진전을 볼 수 있다는 뜻을 말한 것이겠습니다. 배롱나무의 공부가 이런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일홍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철쭉과 영산홍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일본 철쭉과 영산홍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백일홍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철쭉과 영산홍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철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쭉과 비슷한 꽃인 영산홍도 함께 다루어보겠습니다.

강희안은 일본 철쭉이 들어온 것이 세종 23년(1441) 봄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철쭉 화분 몇을 진상하였다고 했는데, 세종실록에 따르면 1441년 2월 16일 대마도에서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때 대마도에서 일본 철쭉이 처음 조선에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품종은 홑꽃이 피는 단엽으로, 조선에서 흔히 보던 겹꽃이 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또 꽃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세종이 이를 대궐의 정원에 심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였지만, 세종이 강희안에게 이모부가 되므로 강희안이 다른 종실 사람을 통하여 두 뿌리 정도를 구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화훼의 전문가였던 강희안이지만 그 재배법을 알지 못하여 하나는 화분에 심고 하나는 땅에 심었는데 화분에 심은 것만 자라났습니다. 이때부터 대궐과 민간에 서서히 일본 철쭉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철쭉이 유명해진 데는 안평대군의 역할이 컸습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아들로 수양대군과 왕위를 두고 다투다가 역모로 몰려 죽은 비운의 인물입니다만,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이른바 사육신 그룹 등 당대 최고의 문사들이 그의 집에 출입했는데 그 집이 비해당이라는 곳입니다. 수성궁 몽유록으로도 알려진 소설 운영전의 공간입니다. 수성궁이 곧 비해당입니다. 이 집에 48가지 아름다운 풍광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일본척촉, 곧 일본 철쭉이었습니다. 왜철쭉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철쭉은 대궐이나 왕실과 관련한 사람만이 가지거나 볼 수 있었고 이 점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이헌경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갔다가 지은 시에서 "꽃 중에 제일가는 품종이라 평양에서 백 냥의 고가에 팔린다네."라고 하였습니다. 백 냥은 쌀값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입니다. 당시 이 정도 돈이면 변두리의 집도 살 수 있는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꽃의 우두머리를 백화지관령이라고 하고, 꽃 중의 제일이라 하여 화중제일류라 하였습니다. 18세기에도 이러하였으니 얼마나 일본 철쭉이 귀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부마의 손자요 재상의 사위인 어떤 사람이 기이한 꽃과 새를 좋아하였는데, 그 집에 세종 때 금속활자로 간행한 자치통감강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물로 지정된 책입니다. 이웃의 서생이 이 책을 탐을 내어 일본 철쭉 화분을 들고 가서 바꾸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일본 철쭉은 이런 꽃나무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도 옛사람들은 공부거리로 삼을 만했겠습니다. 16세기 청백리로 이름난 이제신이 재미난 수필을 남겼습니다.

집에 철쭉이 있는데 일본에서 온 것으로 네 그루다. 어떤 이가 초겨울에 짚이나 멍석으로 싸두었다가 명년 한식에 풀어주라고 하여 그 말대로 하였다.
금년 봄 집에 일이 있는데 멍석이 부족하여 철쭉을 덮은 것을 하나 일찍 풀었다.
늦봄이 되자 세 그루는 찬란하게 나란히 피었지만, 일찍 푼 것은 봄이 저물어갈 때 서리가 내렸기에 나란히 활짝 꽃을 피우지 않다가 나중에 차례대로 꽃이 피었다.
다른 철쭉은 반 달도 구경하지 못하였지만, 이 철쭉은 3월부터 윤달을 넘어 단오까지 피었다.
고운 잎과 푸른 가지는 더욱 화려하여 와서 구경하는 이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기면서 의아해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일찍 풀어놓았기에 서리에 억눌렸고, 서리에 억눌렸기 때문에 차례대로 피어나는 것이다. 차례대로 피기 때문에 오래 간 것이다.
풀어놓은 것이 이르지 않았다면 어찌 손상을 입었겠으며,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어찌 오래갈 수 있었겠는가?
다행히 땅에 뿌리를 붙이고 있어 참된 성품이 훼손되지 않았을 뿐이다.
비록 맑은 서리가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더라도 심히 병들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이요, 마침 오래 지속되는 방도가 생겨난 것이다.
나아가고 물러나거나 번성하고 시드는 이치는 알 수가 없다. 자네는 어찌 생각하는가?
의아해하던 이가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또 이 나무에서 한 가지 관물(觀物)을 한 번 하였구려."

이제신의 집에 왜철쭉이 네 그루가 있었는데 주위 사람이 시키는 대로 초겨울 멍석으로 잘 싸서 얼어 죽지 않게 하였는데, 이른 봄에 멍석이 필요하여 하나를 먼저 풀었습니다. 그 후 늦봄에 철쭉이 일제히 꽃을 피웠지만, 멍석을 먼저 푼 철쭉은 한 송이 한 송이 차례대로 피어 거의 3달이나 꽃이 지속되었습니다. 한 기를 쐬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고 그 때문에 오히려 꽃도 더욱 곱게 피었던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는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추위에 너무 상하였더라면 꽃이 아예 피지 않았겠지만, 우연히 적당한 한기를 맞아 기이한 볼거리를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조선 학자들의 공부 방법에'관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고 그 안에 내재한 진리를 깨치는 방식입니다. 꽃을 보고 이러한 인생 공부를 하는 것이 옛 선비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전에는 일본 철쭉과 영산홍이 같은 나무인 것처럼 된 데도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18세기 문인 김창흡은 "내 영산홍이, 천하에 둘도 없는 꽃이라 여겼건만, 오직 형님댁 섬돌 곁의 왜철쭉만 못하니, 한 번 붉은 노을빛으로 피면 온 동네가 들썩이지."라고 하였으니, 영산홍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일본 철쭉보다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앞서 소개한 신경준의 순원화훼잡설에는 좀더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경준은 영산홍이 꽃의 모양과 색깔이 왜철쭉과 비슷하지만 조금 작고, 휘황찬란한 빛으로 산기슭에 서 있으면 온 산에 모두 어려서 붉은빛을 띠므로 영산홍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또 신경준은 영산홍도 본디 일본에서 자라는데 연산군이 사람을 보내어 배로 실어 오게 하였지만, 돌아오는 배가 호남의 서해안에 이르렀을 때 연산군은 폐위가 되었기에 호남 사람들이 이 꽃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연산군이 좋아하는 연산홍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일기를 보면 연산군이 영산홍과 일본 철쭉 등 꽃을 무척 사랑한 것이 폭군의 이미지와 좀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신경준의 이 기사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연산군일기에 따르면 1505년 1월 26일 영산홍 만 그루를 대궐의 후원에 심도록 하였고, 나중에 재배한 숫자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또 그 생리를 잘 알아서 그늘에서 잘 자라므로 땅에 심을 때는 먼저 땅을 파고 움집을 지어 추위에 부딪쳐도 말라 죽는 일이 없게 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연산군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꽃이 영산홍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보다 앞서 성종실록에는 1471년 11월 21일 장원서에서 영산홍 화분 하나를 올리자, 성종이 "겨울에 꽃이 핀 것은 인위에서 나온 것이며, 또 나는 화훼를 좋아하지도 않으니 이다음에는 다시 올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어기고 겨울에 인공으로 꽃을 피운 것을 성종이 싫어한 것인데, 훗날 군왕의 완물상지를 경계하는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종 때 이 고사를 바탕으로 하여 장원서에서 한겨울 온실에서 꽃을 재배하느라 땔감을 대는 백성들의 노고가 크다 하여 중지하도록 건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영산홍이 성종 연간 이전에 대궐이나 장원서에 재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경준은 영산홍을 통해 공부하였는데 늙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역시 순원화훼잡설에 나오는 수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꽃은 매우 화려한 품종이지만 시들 때에는 잘 날려 떨어지려 하지 않으므로,
마른 채로 가지에 붙어 있으면 색깔이 매우 더럽다. 손으로 쳐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예전의 화려함이 어찌 지금 이에 이르러 이렇게 더럽게 되었는지?
저 꽃이 번화하고 무성한 것은 아름답다고 할만하지만, 그 생을 마침이 오히려 누가 된다.
어찌 그 미워함이 번화하고 무성한 것보다 심한 것이 또한 없단 말인가?
아, 천지의 번화함은 봄과 여름에 달려 있는데 천지는 봄과 여름을 늘 존재하도록
할 수가 없어 가을과 겨울에 시들고 시드는 일이 생기도록 한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고
사물은 어떠하겠는가?
이 때문에 때가 이르러 번화함과 무성함이 생겨나면 받아들이고, 때가 달라져서
번화함과 무성함이 가버리면 결연하게 보냄이 옳다.
꽃이 오려고 할 때에는 사양하더라도 오히려 존재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꽃이 갈 때에는 잡아두고 싶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머무르게 할 수 없는데 반드시 머무르게 하고자 한다면 이는 하늘을 속이는 일이니,
그 구차함과 더러움이 어떠하겠는가?

영산홍은 꽃이 필 때에는 그 화려함이 다른 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꽃이 시들 때에도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말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든 후에는 영산홍보다 더 추한 꽃이 없습니다. 신경준은 봄이 되면 만물이 번성하고 가을이 되면 만물이 시드는 것이 이치인지라, 굳이 이를 거역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생각한 듯합니다.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바로 시들어버린 영산홍이 끝까지 가지에 추하게 매달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굳이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을 읽으면 그 뜻을 절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은 신경준이 서른셋에 지은 것이니 벌써 그 나이에 늙음을 받아들이는 깨달음을 얻은 모양입니다. 조선 후기 문인 김창흡은 늙음을 잊는 것이 노망이고 늙음을 한탄하면 노추라 했지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 철쭉과 영산홍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괴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괴석(수석)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일본 철쭉과 영산홍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괴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소록에는 16종의 식물에 덧붙여 괴석이라는 항목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조선 시대 괴석은 화분에 올려놓고 키웠기 때문입니다. 괴석은 요즘은 수석이라는 말로 불립니다. 앞서 김홍도의 화풍으로 그려진 그림에 국화와 함께 괴석 화분이 있었고, 신윤복의 그림에도 백일홍 곁에 태호석이라는 괴석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강세황의 그림에도 매화와 나란히 괴석이 화분에 놓여 있습니다.

양화소록에는 중국의 이름난 괴석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의 괴석으로 침향석을 소개했습니다. 침향석은 개성 남쪽 경천사라는 절 뒤편에서 생산됩니다. 침향석은 험준한 산봉우리나 깎아지른 절벽 형태를 띠고 있어 그 자체가 조그마한 산수가 됩니다. 더욱이 침향석은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다리가 셋 달린 솥 모양의 도자기 위에 화분 삼아 올려놓으면 물이 정수리까지 올라가고, 이 때문에 이끼가 저절로 끼었기에 명품이 된 것입니다.

침향석은 태호석처럼 가공이 쉬워, 칼질을 해서 구멍을 뚫기도 하고 사슴이나 부처 형상을 새기기도 하며 창포나 꽃을 심기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가공하다 보면 구멍이 막혀 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 때문에 윤기가 사라지거나 바위가 갈라진다고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중국에서는 신윤복의 그림에서 보이는 태호석을 좋아했지만, 조선에서는 이 침향석을 최고로 쳤습니다. 양화소록에는 신계석과 안산석도 소개했지만, 황해도 신계에서 나는 신계석은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고, 경기도 안산에서 나는 안산석은 색깔이 붉고 모래가 섞여 있어 명품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침향석은 조선 중기 무렵 바닥이 나버립니다. 부득이 대용품이 필요했겠습니다. 양화소록을 계승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조선 후기 유행한 괴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해 덕적도에서 생산되는 덕적석이 파도에 쓸려 주름이나 비늘무늬가 있으며, 수십 척 크기도 있어 정원에 인공의 가산을 꾸미는 데 좋다고 합니다.

또 수락산에서 나는 수락석은 석질이 단단하고 윤기가 있으며 수분 흡수를 잘하고 윗부분이 검푸르다고 합니다. 금강산의 금강석은 흰 바탕에 검은 문양이 있어 화조나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어 책상 위에 올려 놓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낭간석은 서남해의 개펄이나 바닷속에 있어 어부의 그물에 가끔 걸려 나오는데, 나선형의 문양이 있고 작은 구멍 자국이 나 있으며 색깔은 회백색인데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명품 괴석은 이름조차 사라졌습니다.

현재 침향석은 일본에서는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침향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센노리 큐우를 시켜 만든 정원인 다이토구지의 다이센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향석을 보기 위해 2008년 이곳으로 갔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당시 직접 찍은 것입니다.

이 침향석은 아마 임진왜란 때 가져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자랑하는 가레이산스이로 유명한 곳입니다. 물을 담은 화병에 침향석을 올려놓고 그 위에 꽃을 심어놓았다는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조선이 자랑하는 침향석이 물기를 정수리까지 흡수하여 늘 축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다이센인의 침향석은 마른 모래 위에 놓여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그 위쪽에 삼신산을 형상하는 바위를 세우고, 그 아래로 모래를 깔아 개울물의 상징으로 두었을 뿐 물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뒤쪽 삼신산에서 물이 흘러나와 침향석을 적시고 삼투압에 의해 물이 정수리까지 올라가면, 그곳에 꽃이나 나무를 심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레이산스이로 변화하면서 꽃이나 나무를 심는 대신 그 위에 화병을 얹은 것이 아닌지는 좀 더 연구해보아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침향석은 그냥 두어야 물기가 꼭대기까지 저절로 수분이 공급되고 이끼가 예쁘게 낀다고 하면서, 강희안은 인공을 가미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침향석이 사라진 조선 후기에는 괴석을 꾸미는 일은 제법 잦았던 듯합니다. 17세기 문인 오이익이라는 분의 글에 보이는 괴석이 그러합니다.

이에 따르면 봉우리와 골짜기의 모습이 또렷한 괴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빈틈에다 단풍나무와 국화, 난초 등을 심어 작은 화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부어놓으면 물이 골짜기에서부터 봉우리까지 올라가고 단풍이나 국화, 난초 등이 무성하게 생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시기 한태동이라는 사람은 침향석과 같은 재질이 아닌 단단한 괴석을 인공으로 가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친척으로부터 봉우리와 계곡의 형상을 잘 지닌 괴석을 가진 것을 얻어서 물을 담은 화분에 놓아두고, 여러 잡꽃을 꽂은 다음 물을 담은 화분에 놓았더니, 괴석의 재질이 단단하여 물을 배척하여 돌은 마르고 꽃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돌을 두드리고 쪼아서 재질을 무르게 하고 뱃속에 구멍을 셋 내어 물이 위로 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창포와 석채를 입히고 사이사이에 여러 풀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정성을 다하여 길러야 한다면서 자신이 만든 괴석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한 기술인지 모르겠습니다.

18세기 이래 중국풍이 조선에 크게 유행하면서 괴석 문화도 중국풍이 유행합니다. 앞서 본 신윤복의 그림에서 보이는 태호석을 수입하는 열풍이 이때 생겨납니다. 태호석은 풍화와 침식을 쉽게 받아 기묘한 모습을 띠는 석회석의 일종입니다.

정조가 세손 시절에 경복궁의 후원에 있던 그리 크지 않은 태호석을 구한 후, 그 기쁨을 적은 글까지 남길 정도로 이 시기 태호석은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조는 태호석을 깨끗이 씻어 화분 위에 올려놓고, 맑고 예스러운 운치를 배워 골동품을 나란히 두고 완상하였다고 자랑하였습니다. "태호석은 천하의 뛰어난 돌이므로, 크게는 정원이나 건물을 꾸밀 수 있고 작게는 책상을 꾸밀 수 있다. 물에도 잘 어울리고 산에도 잘 어울린다."라고도 했습니다.

이후 19세기에는 명문가의 집에 이 태호석이 있다는 기록을 제법 찾을 수 있습니다. 태호석은 중국에서 구입하여 수레에 실어 왔을 것이니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태호석의 대용으로 수포석이라는 괴석을 조경용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수포석은 우리말로 속돌이라고 하며 부석이라고도 합니다.

17세기의 문인 이회보의 수포석기에 따르면 수포석은 주로 바닷가에서 나는데, 그 형상이 삐죽삐죽 산봉우리처럼 생기고 그 재질이 매우 가벼우며 구멍이 많이 나 있어 물이 통한다고 합니다. 이회보는 안동 풍산 출신의 학자로 크게 이름을 남기지는 못하였지만, 수포석으로 정원을 꾸몄다 하니 이 시기 수포석이 지방에까지 유행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포석은 동국여지승람에는 지방의 특산물로 소개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공물로 보낸 것을 보면, 이른 시기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 돌을 화분에 올려놓고 감상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18세기 신위는 "집집마다 수포석이 산처럼 큰 화분에 높다란데, 쌍쌍이 짝을 지어 화초 난간에 마주하게 하였네. 예전 나도 또한 즐겨서 풍속을 따라 하였기에, 한가하게 비를 맞게 던져두어 이끼가 얼룩졌다네."라는 시를 지은 바 있습니다. 신위는 이 시기 최고의 시인으로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올 때 사람 대신 중국에서 구한 괴석을 싣고 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명품은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19세기 후반 학계를 이끈 박규수의 아우 박선수가 손재주가 있어 흙을 뭉쳐 태호석을 만들고 푸른 물을 들였는데, 고대의 청동기도 함께 위조하였다 하니 그가 만든 태호석이 진짜와 다름없이 정교하였을 것입니다.

꽃을 키우는 것은 원예의 기술이지만, 여기서 성찰의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은 조선 선비의 공부법입니다. 격물치지라는 어려운 말도 꽃나무를 보면서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꽃도 그냥 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운치를 더할 수 있는지 창의적 사고를 해보면 꽃구경이 더욱 우아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양화소록』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2

Reading Yanghwasorok

2-1 Chrysanthemums

Hello, students. I'm Lee Jongmook, one of the lecturers in this course titled <Revisiting Korean Classics>, and I'm going to give you a lecture about Yanghwasorok, a classic on Korean gardening and bonsai. This is the second lecture and the theme is 'Reading Gang Hui-an's Yanghwasorok..

In the last lecture, we looked at what kind of book Gang Hui-an's Yanghwasorok is. Now, let's look at how to grow flowers and trees in Yanghwasorok, and what it means to grow flowers and trees.

As mentioned earlier, Yanghwasorok dealt with 17 items of flowering trees and oddly shaped stones, of which we will focus on five items: chrysanthemums, plum blossoms, crape myrtles, royal azaleas, and oddly shaped stones. And we will expand our scope from Yanghwasorok and see how writers of Joseon thought about these five items.

This painting is housed in the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 in Paris, France. It's a must-see museum in Paris. There is a large collection of Kim Hongdo's paintings, and this one is also presented as his work. It apparently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by Kim Hongdo's style, but experts say that he must not have drawn it himself. And yet this is a very interesting painting.

Seonbi, or scholars are playing a game in the yard. This painting is called Manjeol-jenggyeong, which means playing seunggyeongdo game in the late autumn. Seunggyeongdo is a game in which you can be promoted, demoted, and sometimes exiled depending on where you throw the dice with your government post name written on the board.

This painting depicts the backyard of a well-established house in the late Joseon Dynasty. Several things are noteworthy. There is a tree on the right that looks like a pagoda tree, and below it, four pigeons are sitting and playing. Around the 18th century, there was a huge fad for raising pigeons in the capital city, Hanyang.

According to the Annals of King Taejong, a Japanese monk who came as an envoy was given a pigeon as a gift, and a 16th-century man named Bak Yeong loved pigeons so much that he went all the way to Liaodong at the age of 17 to buy them. Yu Deukgong, one of the Silhak scholars, wrote a book about raising pigeons, titled Balhapgyeong. And his friend Yi Deokmu's Sasojeol also records that pigeon mania is very harmful. There are more than dozens of species of pigeons in the poem written about Seongsijeondo (the painting of the 18th-century Hanyang), which depicts Hanyang at the time.

And below the pigeons, there are flower pots. You can also see two pots with red oddly shaped stones on them. A pomegranate tree is between them. The pomegranate tree is a variety covered in Yanghwasorok. Pomegranates for viewing flowers are called flower-pomegranates or sea-pomegranates. Those from Persia are called anseokryu, or Persian pomegranates, which have quite big fruit. All pomegranates you see today are Persian, and so is the one in this painting.

There's a reason why the pomegranate is between the oddly shaped stones. The pomegranate has the word stone (seok) in Korean, and it likes stone. In Joseon, among pomegranate varieties, some had a round shape like the Japanese umbrella pine, while others had two or three winding layers like the Chinese juniper.

The most beloved flowers of the writers of Joseon were chrysanthemums and plum blossoms. First, let's take a look at chrysanthemums that are covered in detail in Yanghwasorok.

The chrysanthemum is also the flower of the noble man. Yi Jeongbo, an 18th century writer, said, "Chrysanthemum, how did you spend the spring breeze in March and bloom alone under the cold sky with falling leaves? Perhaps you are the only one who is faithful and upright in the freezing cold." As the passage above shows, ordinary flowers usually bloom in spring, but chrysanthemums bloom after frost, so he admired the spirit.

Yi Jeongbo was a famous writer who served as Deajehak (Principal Academic Leader)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and he is also renowne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with as many as 78 sijo (short poems). Chrysanthemums and plum blossoms appear very often in sijo, too. In his sijo, he mentions osanggojeol (spirit to endure the frost alone) as a characteristic of chrysanthemums.

Osanggojeol is derived from a poem by Su Dongpo, a famous Chinese writer in the Song Dynasty, saying, "The lotus has withered and the cover for rain has disappeared, yet the chrysanthemum has branches that beat frost even after withering." In autumn, the large leaves of the lotus wither, but the chrysanthemum blooms slowly after frost. He praised the noble integrity that beats frost.

Also, chrysanthemums are representative of yellow flowers,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the flower of impartiality that Confucianism aims for. The chrysanthemum is the flower of an impartial nobleman. When selecting the editor-compiler of Kyujanggak (Royal Archives) in 1786, King Jeongjo, one of the greatest monarchs of Joseon, made the candidates write a poem about the yellow chrysanthemum, and the chrysanthemum represents the intention of selecting a scholar with impartiality. The same can be said about the fact that the imperial dress of China was yellow.

Another reason to love chrysanthemums is due to their practical medicinal effects. Yanghwasorok also points out that chrysanthemums lighten the body, prolong the life, and clear the head and the eyes. The chrysanthemum here is a small and yellow variety called the Indian chrysanthemum. People dried Indian chrysanthemums and even used them as pillow stuffing. They are supposed to be good for insomnia. The chrysanthemum pond in China is known as the spring water that makes you live up to a hundred years.

Soft leaves and stems of chrysanthemums are eaten as steamed vegetable in spring, and added to spicy fish soup in summer. The flowers are used to make chrysanthemum tteok (rice cake) in autumn, or dried to make tea and liquor in winter. Let's take a look at the chrysanthemum tea first.

In the book Random Expatiations of Oju, compiled by Silhak scholar Yi Gyugyeong, the method of making chrysanthemum tea is introduced in detail. Yi Gyugyeong was the grandson of Yi Deokmu, who was briefly mentioned earlier, and his book is the largest encyclopedia of the Joseon Dynasty. Here's how to make chrysanthemum tea according to his book.

It says that when the flowers of the Indian chrysanthemum are half-open, you can pick them, take off the green skin of the calyx, boil them in spring water and drink it with honey to taste the sweetness. And when the flower is already in bloom, you can remove the skin of the calyx and mix them with honey to make them moist, roll them in starch powder, put them in boiling water to get some heat for a while, add them in honey water with a few pine nuts floating, and then drink it. On the Double Ninth Festival, people made tteok and jeon (pan cake) of chrysanthemum flowers, called jagukhoe (Meeting for Boiling Chrysanthemums).

Chae Jegong, who helped King Jeongjo lead political reform, once recalled like this: "On the Double Third Festival of March or the Double Ninth Festival of September, on the day when the wind is calm and the weather is warm, we led the women of the family with a pot and sat them on a rock on the cliff, picked wild flowers or chrysanthemums in the cracks of rocks and cooked them to make tteok, and boiled mugwort soup for a side. Delighted and mirthful, we had endless joy from morning till evening."

Chrysanthemum tteok played a part in a family picnic. Chae's house was located in Myeongdeok-dong, today's Jangwi-dong, and it is believed to be where the North Seoul Dream Forest is now. Chae Je-gong, who lived there, went on a picnic for women, and the food they ate at this time was chrysanthemum tteok.

Chrysanthemums were also made into namul (herbal dish), which was called hwanghwachae. In Yi Gyugyeong's Random Expatiations of Oju, introduced earlier, he said, "After picking the flowers of the Indian chrysanthemum in autumn and removing the calyx and stamen, put them on a small wooden table, wash them lightly with clean water, slightly wet them with pine needle liquor as if they have dew on them, and sprinkle mung bean powder on them to cover the petals. Pour water into a pot and blanch the prepared flowers with low heat and drain them, and try not to make lumps. Again, dip the petals one by one in cold water, take them out, and mix them with vinegar and other tasty ingredients before eating."

These are some other virtues of chrysanthemums, which Yanghwasorok explaines mainly through Chinese literature.

Yanghwasorok contains practical information about cultivating various chrysanthemums. First, it introduces how to grow chrysanthemums. In the previous painting from the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 we saw yellow and red chrysanthemums in pots side by side. Yanghwasorok, or its successor Sallimgeyongje, says that in order to enjoy various colors of chrysanthemums together, it is good to mix them in one pot, but if the pot is small, it is good to plant only one.

Hong Manseon, an active scholar during the late 17th and early 18th century, wrote Sallimgyeongje (The Economy of Forest). Written prior to Imwongyeongjeji, which was introduced in the previous session, it is a book that describes how intellectuals live a secluded life in the forest. And the economy here has a little bit different meaning from the one we use today, which means to administer the world and relieve the people. This book can also be said to succeed Gang Hui-an's Yanghwasorok..

For example, you should give the chrysanthemum manure when it takes root. Sallimgyeongje introduces a secret: take the fertile soil from a ditch, sort out the stones or pieces of rooftiles, grind them, dry them, steam them, mix with sesame dregs, and put them in the pot. Not only will it grow well, but it will not have bugs, and if it gets yellow leaves, pouring chive juice onto its root will make them recover green. If chrysanthemums get too much sunlight, the leaves turn yellow or red, and if they get too much rain, the leaves turn black. I think this method will be helpful in these cases.

And chrysanthemums can grow from cuttings, so you can plant them densely in a pot, place them in the shade, and water them slowly. Earthenware pots are good, and when they bloom, they can be moved to a luxurious ceramic pot.

In the literature of the Joseon Dynasty, there are quite a few records of chrysanthemums with three, four, or five colors. Yanghwasorok says if you peel off each of the two chrysanthemums, yellow and white, and then combine them with cedar bark, half the flowers will be yellow and half white. As such, it introduces how to make chrysanthemums of various colors by grafting them.

In Baekwoonpil, written by Yi Ok, an 18th century writer, we can even see the story of an old man who made and sold chrysanthemums as black as they were lacquered. During this period, peddlers went to Hanyang and sold flower trees. You can see from this article that Hanyang people put various chrysanthemum pots in the yard. Baekwoonpil presents how to grow various flowers and trees like Yanghwasorok.

Chrysanthemums in Joseon were very diverse. Yanghwasorok says there were 35 varieties described in Chinese literature, but there were 20 varieties in Joseon. There were many foreign species of flowers in the Joseon period, though this is even more so today. Gang Hui-an says that only some of the famous flowers of Joseon originated in Joseon, and lists various flowers that King Chungsuk of Goryeo brought when he returned from the royal court of Yuan.

The list includes: chrysanthemums of dark-red, Yanjing yellow, Yanjing white, scarlet, glittering red, silver vermilion, crane head red, and arsenic white; tree peonies of yellow, white, proper red, and Luoyang red; double-flowered camellias; double-flowered plum blossoms; peach blossoms of various colors such as white, pink, and red; and winter daphne, green grape and black grape, etc. These were all from the Yuan Dynasty at that time, and it was said that these were the ones that people succeeded in cultivating by early Joseon.

There are many varieties I've never heard of before, and most of them are now gone. Many of the flower trees we see around us now come from abroad, and it was the same during the Joseon period. For example, daffodils and Chinese trumpet creepers, which are now common in Korea, all came from China in the early 19th century. Some of the chrysanthemums with unusual names that came in during the Yuan Dynasty were found in the literature of late Joseon, but now it is difficult to see them.

However, in the 18th century, the varieties of chrysanthemums became more diverse, and wealthy families scrambled to cultivate high-quality chrysanthemums. Jeong Yak-yong said that there were 48 varieties of elegant chrysanthemums in the house of a hermit in Gapyeong. As we saw in the last session, there were 18 chrysanthemum pots in the Myeongryebang house where Jeong Yak-yong lived, and they must have been different varieties. In addition, Yu Bak, who used the pen name Hwaam because he liked flowers, wrote in his book Hwaam Surok that there were 54 varieties with yellow flowers, 32 with white flowers, 41 with red flowers, and 27 with purple flowers, so a total of 154 varieties were mentioned.

Yu Bak's Hwaam Surok was the late Minister Yi Sang-hee's favorite book, and he spent months of his salary to buy this book. Minister Yi Sang-hee wrote a book on flowers called Korean Culture through Flowers on a vast scale of three volumes. The cultural history of Korean flowers was illuminated more extensively by him, who discovered materials and wrote about them himself. This book confirms that there were 154 varieties of chrysanthemum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when Yu Bak lived, which is astonishing.

In addition, Kim Jung-hui, a great scholar who created the Chusa writing style, wrote this poem metioning 163 kinds of chrysanthemums that were popular at the time: "There are as many as 163 varieties, but in the end, hakryeong is the first among them. Its bright face stands out even behind the collapsed wall, so it gained its will from the autumn wind and white dew."

Of the well over 100 kinds of chrysanthemums, hakryeong (crane feather) was the most loved by Joseon literati since the 18th century. Among the new chrysanthemums that were popular in Joseon since the 18th century, some came from Japan, and baegunta (white clouds) was especially famous. Both hakryeong and baegunta were the finest chrysanthemums with large white flowers. Baegunta was originally called Silla chrysanthemum, but it seems that it disappeared during the Joseon period and then a similar variety came back from Japan.

Though not included in Yanghwasorok, I'll discuss how to enjoy the later chrysanthemums. The customs that enjoy chrysanthemums are called Gugeum, Hwang-gugeum, Sang-gugeum, Beomgukhoe, Gwan-gukhoe, and Sang-gukhoe. When chrysanthemums bloom, it was the custom of Joseon writers to enjoy poetry and drinks with close friends. What's more elegant was to put a chrysanthemum pot in front of a lamp at night and enjoy it in dim light.

On the 5th day of the 10th lunar month, when chrysanthemums were in full bloom, Ha Soo-il, a writer of the mid-Joseon Dynasty, wrote a poem while enjoying the chrysanthemum pots in front of his uncle and grandchildren. Bak Yunmuk, a middle-class poet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ile looking at the shadow of chrysanthemums under the lamp, said, "The shadow of the chrysanthemum is tilted at an angle under the lamp, making the picture vivid and beautiful. It's funny, Tao Yuanming was rather tasteless, and didn't imagine looking at flowers in the middle of the night at his time."

Ha Soo-il was a writer from Jinju and a scholar renowned in Gyeongsang-do. And Bak Yunmuk was famous as a poet while working as a junior official of Kyujanggak during King Jeongjo's and King Sunjo's reign. His poem is interesting. People associated chrysanthemums with Tao Yuanming, but he didn't actually know the beauty of enjoying the shadow of chrysanthemums, so Bak Yunmuk laughed at him.

Jeong Yak-yong, a great scholar, also perfomed the tricky chrysanthemum shadow play, which is especially presented in detail in his article 'Chrysanthemum Shadow Play.'

After removing all the mess such as hangers and tables, and correcting the location of the chrysanthemum, I placed it a little way off the wall, and made it lit by a candle in a suitable position. Only then did strange patterns and unusual forms suddenly fill the walls. The closest one was flowers and leaves intersecting one another, and the branches were dense and neat, so it was like an ink wash painting spread out, and the next one was swaying and glimmering, wavering like dancing, as if the garden branches were hanging on the western fence when the moon rose from the eastern hill. The farthest one was blurry and hazy, like a thin, light cloud or dim sunset. One moment it seemed to disappear, but the next moment it suddenly flashed like full waves, making it difficult to distinguish.

He removed all the messy items such as hangers and desks, put the chrysanthemums in the right place between the walls and lit a candle to light them. The flowers, leaves, and stems of chrysanthemums made different lights and shades depending on the distance, creating shadows like an ink wash painting. What do you think? In the last session we learned that Joseon literati put a lot of effort into viewing lotus flowers and plum blossoms, and you can see the same thing here.

In this session, we looked at chrysanthemums. Next time, let's explore plum blossoms.

2-2 Plum Blossoms

Hello, students. Last time we looked at chrysanthemums. Let's take a look at plum blossoms this time.

This painting is Gang Se-hwang's Muhan'gyeokru Cheonggongjido (Infinite View Pavillion with Clearing Tools.) Gang Se-hwang, pen name Pyoam, is a very famous writer and painter. Infinite View Pavillion is the name of the house Gang Se-hwang built in Namsan. It is a painting with tools to clear the mind at Infinite View Pavillion where you can see infinite scenery. On the desk, there are books, brushes, inkstones, and ruyi (scepter), and plum blossoms are placed side by side with an oddly shaped stone in a flowerpot on the left. This is the scenery of a study that Joseon literati sought to have. Now let's explore the plum blossoms, which appear in this painting.

In China, Fan Village Plum Book (Fancun Meipu) by Fan Chengda of the Song Dynasty is the most widely known work on plum blossoms, and Yanghwasorok quoted this book, saying that the plum blossom is an umul (stunner), or 'excellent but flawed one.' The word umul refers to a beautiful woman, and it comes from the episode of Shuxaing of the Jin,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whose mother said, "A beautiful woman easily seduces people's hearts, so if they are not truly virtuous and practicing righteousness, they will surely suffer disaster." The word fits well since East Asian people love plum blossoms too much. The plum blossom was also Joseon literati's favorite flower.

A plum tree is valued more when slanted, emaciated, and with grotesque old branches. In that way, it is considered more elegant and dignified. However, the one grafted on a young tree produces soft leaves after a year, and the stem immediately extends upward. This is called gijo (air branch). Now, plum blossoms are also called plum trees. This name only represents the profit of getting plums, so there is no taste or elegance. Plum trees grow in places where the ground is too fertile, so they have branches like thorns and dense flowers.

When painting plum blossoms, there is a saying, "Don't put flowers on gijo," which means that flowers must bloom sparsely on a groovy and emaciated branch to be elegant. Yi Deokmu wrote a book called Yunhoemae-sipjeon (the Brochure for Artificial Plum Blossoms), which is a book about how to make plum blossoms artificially. According to this book, when you make branches, they should be made in the shape of the letter 'woman(女),'with the branches crossing but not extending upward.

Yunhoemae means reincarnation of plum blossoms, and by this he was exaggerating the process where plum blossoms bloom, honeybees eat pollen to make honey, and people make artificial plum blossoms with the remaining beeswax from the honey, thus the reincarnation of plum blossoms. Yi Deokmu made and sold artificial plum blossoms like this. He even wrote a document of selling them in order to have a drink with his friends, and put it in his anthology. I wish I had such taste and humor.

In natural conditions, plum blossoms do not look groovy and gaunt. Of course, flowers don't even bloom in the middle of winter in Korea. The plum blossoms, which, Gang Huian said, were elegant and dignified, were artificial. When grafting plum blossoms, you should first hang a small peach tree planted in a pot on a plum tree, peel the bark where they touch each other and combine them, and wrap them together tightly with a live arrowroot vine.

After that, you should wait for the energy to pass through, and the bark to stick together, and then remove it from the original plum tree. This method was called euijeop. The flowerpot should be placed where it is half sunny and half shaded, and if you water it often, the branches attached to each other become the shape of an old one lying at an angle.

This is not the end. When buds come out from the branch, you should move it to a warm room and sprayed the branch and root with warm water. Heat charcoal in a brazier and place it next to the pot so that it does not get cold. Then, flowers will bloom before Dongji, and the room will be filled with a clear scent. According to Sallimgyeongje, when the flowerpot freezes and does not bloom due to mishandling, you should put boiling water in a bottle and place it on the flowerpot.

It would be very elegant to see the plum blossoms bloom in the snow in the middle of winter, but they do not bloom until early spring, except in some islands. But some people aim to make plum blossoms bloom before the Lunar New Year. That's why they graft it like this and keep it inside.

However, if the tree is too old to branch and buds do not form, you can move it to a sunny place and let the growing roots spread. Plum blossoms in a flowerpot should be brought back into the hut so that they do not get cold after the flowers have fallen. If they get cold by the time they bear fruit, they will not have fruit, and the branches will dry up and die as well.

It seems simple, but making them bloom in this way took work. It is said that Kim Hongdo, a famous painter, sold his paintings for 30 nyang and spent 20 nyang to buy a flowerpot with plum blossoms, and at that time, 30 nyang was a large sum of money enough to buy a small thatched house. It was not easy to make plum blossoms that bloom in the middle of winter.

There's an interesting essay, Two Little Plum Blossoms, by Jeong Geuksun, an 18th century writer. He is not very well known, so his collection of works is not passed on in Korea, but the only copy is in the collection of the East Asian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story of grafting plum blossoms in this book, and you can make sure that Gang Huian's method was further developed. Let's read it.

Although Joseon people could improve at 100 things, what is worth noticing is their growing plum blossoms. Plum blossoms are clear, elegant, and plump, so their trunk itself is not different from other flower trees. You can't think of a tree trunk beautiful unless it's old, so people who like eccentricity search the valleys for old peach or apricot trees, cut them, and leave only stumps and scrawny roots. After the wind and the rain cut and grind them, and the worms ate them, they are hung upside down on the sheer cliff, pressed at an angle against messy piles of stones in an old field, to form winding knots, and with a hole in the middle, in a shape of a turtle, a snake, or a monster, they are grafted. They are grafted on ordinary branches after the elegant flowers fall off, and planted in an earthen flowerpot. The pot is placed deep in a room before the day gets cold, but if there's a concern about its energy being scattered and not producing flowers, it is stored in a small maehap (Plum box). Dust and soot should never pollute the outside, allowing clear buds to grow inside. When there is an appropriate place, they move it, put more earth around it and water it, according to the appropriate cultivation method. Because of this, they bloom when the whole world is cold. It's as if a god or a magician made it by magic. How amazing.

Plum blossoms are beautiful, but the tree stump itself is no different from ordinary flower trees. In order to make it peculiar and bulky, they transformed peach or apricot trees into peculiar shapes and grafted them onto the plum tree. And they made a small cabinet in a room to protect the plum flower pot, which is called maehap. Maehap is also called maegam, maegak, or maeok.

As Jeong Geuksun said that it was unique to Korea, it is hard to find a record of maehap or maegam in China. In Korea, these terms began to appear around the 17th century and were used frequently around the 18th century. The technic developed one step further from the time of Gang Huian, and Jeong Geuksun said that Joseon people are the best in the world at cultivating plum blossoms.

This is an 18th-century painting by an artist named Seokdang Yi Yushin, titled Gaheon-gwanmae (Seeing Plum Blossom in Gaheon). This painting is housed in the Dongsanbang gallery. Among his works, this painting especially got attention, of which the reason was the plum blossoms. It is a picture describing a gathering in the house on a snowy day to appreciate the plum blossoms.

When the plum blossoms bloom in the middle of winter, scholars of Joseon invited their friends to drink and write poems while enjoying the plum blossoms. This drinking party where they enjoy plum blossoms in the snow was called mahwa-eum (Savoring the Plum Blossoms). Kim Jongsu, an 18th-century writer, wrote a wonderful article about maehwa-eum. As mentioned earlier, he was a close friend of Yi Yunyeoung and Yi Insang, and had refined taste. He came from a prestigious family of the Cheongpung Kim Clan and was a close aide to King Jeongjo. Although he went up to become a Bongjoha, a second junior rank official, he claimed to be a clear stream, a man of integrity, when he was young. His writing is also very clear.

Winter has already passed half way, but the weather just happened to be mild. It rained, snowed, and then the moon rose again at night. We went up to the pavilion, looked at the river, and walked through the garden, dragging canes. We sat around the brazier and grilled the meat. We sang together across the table. Each did what they wanted. The small plum blossoms in the cabinet were full of unbloomed buds like stars when we came. When it was time to go back, the flowers bloomed. For three days, conversations were only random stories from before. And not a poem was composed, for we worried it would damage the true meaning.

Yeonam Bak Jiwon, who lived in almost the same period as Kim Jongsu, also had a stove party where he and his friends sat around a brazier and grilled meat on a snowy day, and he wrote that the whole room was heated with smoke, and the smell of green onions, garlic, and meat was soaked in their body. The scene was similar to today's barbecue restaurant.

On the other hand, Kim Jongsu's friend Yi Insang complained that in the middle of winter, he would invite guests and friends to have maehwa-eum, with goat entrails on a brazier and a griddle in front of a blanket, where the smell of wine and the smoke from grilling meat spouted out in a steamy heat, and sweat poured down everywhere. Moreover, sometimes the plum blossoms, which were supposed to bloom in the middle of winter, already bloomed in October due to the fire in the hot brazier. It would have been an unbearable humiliation for plum blossoms, the symbol of purity and integrity, to have this fatty meat-grilling smoke all over.

Drinking tea is also great for avoiding grilling meat under the plum blossoms. Yi Sun-in in the mid Joseon period said, "The north wind blows the snowstorm to hit the window, and I sit in garot (persimmon dyed clothes) with a brazier in front of me and heat the tea. I don't have anything good to give you in this small thatched house, but why don't you come here and see the plum blossoms?" It would be nice to recite a wonderful poem like this. Yi Sun-in was good at writing poems with clear imagery in a poetical style of the Tang Dynasty, and this work is one of them. It is worth memorizing.

Many literati were critical of the excessive artificiality of growing plum blossoms. One of Gang Huian's descendants was Gang Hang, who lived during King Seonjo's reign. Gang Hang was taken prisoner by Japa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but fortunately returned to Joseon, and he is known as a scholar who spread Confucianism in Japan. After carefully reading Yanghwasorok, written by his ancestor, Gang Huian, he cursed that while the plum blossoms of Yanghwasorok are natural, his contemporaries were abusing them.

He criticizes that making the straight trunks round, breaking long branches, stunting the growth so that they can't be as tall as a man, making them thinner than 30cm, and forcing them to lie at an angle rid the plum blossoms of their nature. He continues that people plan to make them bloom too quickly, put too much attention, plant them in an earthen pot, place them in a warm ondol room, pour hot water, heat with a brazier, and get flowers before Dongji (winter solstice), only to boast to others – inviting dilettantes, and finally using them to socialize with powerful people.

He scolds that the meaning of loving plum blossoms lies in moderation and integrity, but they only follow the wizardry. Now that people today can't grow plum blossoms as skillfully as those of Joseon, I think Gang Hang would be satisfied. However, during the Joseon Dynasty, literati rushed to make these plum blossoms, so, as mentioned earlier, plum blossoms were the 'stunners.'

In this session, we have looked at plum blossoms. Next session, we'll talk about crape myrtles.

2-3 Crape Myrtles

Hello, students. Last class, we looked at plum blossoms. This time, let's take a look at crape myrtles.

This is a painting by Shin Yunbok, a master of genre paint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one of the artworks that Jeon Hyeongpil worked hard to collect and is housed in the Kansong Art Museum. This painting is a piece of the pungsokdocheop (album of genre painting)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Art historians named it Sonyeonjeonhong, a Boy Cutting a Red Flower. At the top the line reads, "The leaves are dark blue, but on the branches are cut and pasted small red flowers." Here, the red flower is crape myrtle.

A young man is seducing a woman. His family must have been very rich to have the huge Taihu stone in the garden. Taihu stone was imported from China around the 18th century, so you can only see it in some houses. And two crape myrtles are blooming. The crape myrtle was also a rare variety that was difficult to raise in Hanyang at that time.

Crape myrtles are also called jamihwa. Literally, its Korean name means 'hundred-day flower,'because of its long flowering period, and zinnia is also called by the same name, so to distinguish, they call it mokbaegilhong. And mokbaegilhong (hundred-day flower from tree) has been abbreviated to baerong tree. It is also called a 'tickle tree' because it shakes when touched on the joint of branches, or 'monkey slider' because it is barkless and slippery. Considering these nicknames, the young man in Shin Yunbok's painting that we saw earlier, who seduces a shy woman, might fail.

Crape myrtles are beautiful flower trees that redden the southern land for over three summer months. The crepe myrtle was also grown in a pot, but now it's hard to see it in a pot. Yanghwasorok presents how to grow crape myrtles in a pot.

Gang Huian says that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re were only a few peony flowers in government offices, but the crape myrtle was seen a lot in the coastal area of Yeongnam. He says the wind and climate were much slower than in China, so it only bloomed between the 5th and 6th lunar months, and fell between the 7th and 8th. So it was not that different from it is now.

According to him, this flower is beautiful like silk, shines the garden like a sunset and is flashy to people's eyes, so they planted a 3 metre tall tree in the mansion of higher officials in the capital. The rain that falls around plum ripening season is called mae-u (plum rain), and at this time, if you cut the crape myrtle branch and stick it in the shady ground, it will grow well. You should support it with a bamboo called haejuk, which grows in the coastal area, and it will grow beautiful if it is straightened into the shape of baegyangryu. Baegyangryu is a variety of pomegranates whose stems are straight like nut pines, but become thinner as they go up. An unglazed earthen pot is used.

Unlike ordinary flowers that bloom and fall quickly, the crape myrtle was loved by scholars of Joseon because it keeps blooming throughout summer. Shin Gyeongjun, known as a Silhak scholar from Honam in the 18th century, returned to his hometown of Sunchang in 1744, when he was 33 years old, and lived in a house called Guiraejeong, which his family inherited from Shin Sukju's younger brother Shin Malju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He dug a pond with three islands in it and collected strange rocks, and after obtaining various flowers and planting them, he named the garden Sunwon and compiled a collection of essays called Sunwonhwahwe Japseol (Stories of Sunwon Flowers).

Yanghwasorok is an important reference to this work, too. In this book, Shin Gyeongjun left a topic to ponder over about crape myrtles. Let's read it now.

Restraint is a way to go on endlessly. If a man's voice keeps crying out in a hurry without restraint, he will be choked. If you only run fast without restraint, you'll sweat and gasp and fall. If there is no restraint in the pond, it will overflow; if there is no restraint in the warehouse, it will run out. It is the truth that nothing can be endless without restraint. Flowers with large petals fall easily because the petals have no restraint. The lotus, water pepper and peony are like this.

Shin Gyeongjun says that everything in the world can be endless because they have the power to control themselves. The key word in this article is 'restraint.' It is knowing when to stop and when to move on. Flowering also requires restraint, so if it knows how to restrain and bloom slowly one by one, it will last long. The crape myrtle can bloom for more than 100 days because it is a flower that knows restraint.

Shin Gyeongjun implies on human affairs with crape myrtles. He must intend to show that we can finally make greater progress when we work one by one rather than be driven by greed. This is what the study of the crape myrtle is like.

This class, we looked at crape myrtles. Next time, we will look at Japanese azaleas and satsuki azaleas.

2-4 Japanese Azaleas and Satsuki Azaleas

Hello, students. Last session, we looked at crape myrtles. This session, let's take a look at Japanese azaleas and Satsuki azaleas.

First, let's look at the Japanese azalea. I'm going to talk about the Satsuki azalea, a similar variety, later as well.

Gang Huian says that Japanese azaleas were introduced in the spring of the 23rd year of King Sejong (1441). It is said that several azalea pots were offered by Japan, and according to the Annals of King Sejong, local products were offered as tribute by Tsushima Island on February 16, 1441, so it might be that Japanese azaleas first entered Joseon via Tsushima Island this time.

This variety was single-flowered, and the flowers were incomparably more beautiful than the double-flowered ones that were commonly seen in Joseon, and the flowers lasted long. King Sejong planted it in the garden of the palace and prevented it from spreading outside, but since Gang Huian was the king's nephew, it seems that he obtained a couple of roots through another member of the royal family.

Although Gang Huian was an expert in horticulture, he did not know how to grow them, so he planted one in a pot and the other in the ground, but only the one in the pot survived. From then on, Japanese azaleas gradually began to spread in the royal palace as well as outside of it.

Prince Anpyeong played a big role in making Japanese azaleas famous. Prince Anpyeong was the son of King Sejong, and a tragic figure who died because of alleged treason while confronting Prince Suyang over the throne. But before that, the best literati of the time, including the so-called Sayuksin (six martyred ministers), frequently visited his house, which was called Bihaedang. This is the space of the novel Unyeongjeon, also known as Suseonggung Palace Dream Story. Suseonggung Palace is Bihaedang. This house had 48 beautiful scenic views, including the Japanese cheokchok, or Japanese azalea. Waecheoljjuk means the same thing.

However, only people related to the royal palace or royal family could have or see Japanese azaleas, which continued into the late Joseon Dynasty. A poem by Yi Heon'gyeong, a poet in the late 18th century, once said, "It is the best variety among flowers, so it is sold at a price as high as 100 nyang in Pyongyang." A hundred nyang is more than 5 million won based on the price of rice. At that time, it was a huge amount of money with which you could buy a house on the outskirts.

Therefore, it was called the 'head of hundred flowers,' or the 'best among flowers.' This was the case in the 18th century, so you can see how precious Japanese azaleas were. In the mid-Joseon Dynasty, there was a grandson of a princess's husband and son-in-law of a Chancellor, who liked exotic flowers and birds, and he had Jachitonggamgangmok (Outline of the Comprehensive View for Aid in Government), published in metal typ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It's a book designated as a treasure now. He is said to exchange the precious book with a Japanese royal azalea pot when a student in the neighborhood coveted this book and asked for it.

Such a rare variety was the Japanese azalea. So, people of old days could have had it as a subject of study. Yi Jeshin, a renowned official with integrity in the 16th century, left an interesting essay.

I have azaleas at home, from Japan, four trees. Someone told me to wrap them in straw mat in early winter and unwrap them on Hansik the next year, so I did as I was told. I had work at home this spring, and I needed one more straw mat, so I had to unwrap one of the azaleas earlier. In late spring, the three trees bloomed brilliantly side by side, but the one that was unwrapped earlier was frosted at the end of spring, so it did not bloom along with others, but bloomed later one by one. Other azaleas were not there to be viewed after half a month, but this one bloomed from March through the leap month until Dano. The fine leaves and green branches were more splendid, and everyone who came to see was amazed and wondered. It was suppressed by frost because it was unwrapped early, and it bloomed one by one because it was suppressed by frost.

Yet it lasted longer because it bloomed one by one. How could it have been damaged if it hadn't been unwrapped earlier, and if it hadn't been damaged, how could it have lasted so long? Fortunately, it has roots in the ground, so its true character has not been damaged. Even if there were clear frost and cold wind, it would not have been enough to make it seriously ill. Just in time, a way to last longer was created. The logic of proceeding and retreating, or thriving and withering, puzzles me. What do you think? The wondering man said, in delight, "You've done another gwanmul on this tree."

There were four Japanese azaleas in Yi Jeshin's house, and he wrapped them well in early winter with straw mats to keep them from freezing, following other people's advice, but he needed a straw mat in early spring, so he unwrapped one of them first. After that, they bloomed in late spring all at once, but the one unwrapped earlier bloomed one by one, and lasted for almost three months. It got sick because it got cold, but the flowers bloomed more beautifully because of that. The logic of things is elusive indeed.

If it had been too damaged by the cold, the flowers would not have bloomed at all, but by chance, it got just the right amount of coldness and created a unique sight to see. One of the methods of study by Joseon scholars is gwanmul. It's a way of observing things and getting insight into their inherent truth. Scholars of the old days studied life this way by looking at flowers.

By the way, some dictionaries say Japanese azaleas and Satsuki azaleas are the same trees, which is not true. Kim Changheup, an 18th-century writer, said, "I thought my Satsuki was the best flower in the world, but it is not as good as the Japanese azaleas next to my brother's steppingstone, which makes the whole town get excited once they bloom in the red like a sunset." Satsuki azalea is beautiful, but it seems to be not as good as Japanese azalea.

Shin Gyeongjun left a more detailed record in Stories of Sunwon Flowers, mentioned earlier. He says that Satsuki flowers have a shape and color similar to Japanese azaleas, but they are a little smaller, and they are called yeonsanhong (red reflected on the mountain), because when they stand at the foot of the mountain, their brilliant color shines all over the mountain, giving it a reddish hue.

He also says that Satsuki was originally grown in Japan, and Yeonsangun sent people to bring it by ship, but when the returning ship reached the west coast of Honam, he was dethroned, so a lot of these flowers were left in Honam, and they were called yeonsanhong, Yeonsangun's favorite. According to the Annals of Yeonsangun, his love for flowers such as Satsuki and Japanese azaleas was a little different from that of a tyrant. However, this article by Shin Gyeongjun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e fact.

According to the Annals, on January 26, 1505, 10,000 Satsuki azalea trees were planted in the backyard of the palace, and it is ordered that the number of cultivated trees be reported later. It is also recorded that Yeonsangun was well aware of its nature, and because he knew that it grows well in the shade, he ordered to dig a pit first when planting it in the ground, and make a dugout hut to ensure that it would not die of cold. Still, it remains the same that Satsuki was the most loved flower by Yeonsangun.

An interesting episode is recorded earlier in the Annals of King Seongjong. When he was given a Satsuki flowerpot from Jangwonseo (Office of Gardens) on November 21, 1471, Seongjong said, "Flowers in winter come from artificiality, and I don't like flowers, so don't give them again from now on." King Seongjong hated artificially bloomed flowers in winter against the law of nature, which later became an episode to warn the king of wanmulsangji, losing his will while playing with things.

During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a scholar suggested, referring to this episode, that Jangwonseo should stop cultivating flowers in a greenhouse in winter, for people were having so much trouble providing firewood. These records show that Satsuki was cultivated in the royal palace or Jangwonseo before King Seongjong.

Shin Gyeongjun thought about getting old while studying through Satsuki azaleas. It's another essay from Stories of Sunwon Flowers. I'll read it.

The flowers are from a very colorful variety, but they do not fall off easily when they wither, so the color gets very dirty when they are attached to branches while being dry. They don't come off easily even if I hit them with my hand. How did the splendor of the past become so dirty now? They might have been beautiful when they were flourishing and exuberant, but the end of them is rather a trouble to others. Could there be any other thing whose ugliness is bigger than its beauty at its peak? Alas, the prosperity of the world depends on spring and summer, but the world cannot make spring and summer always present, so it has to fade and wither in autumn and winter. How could it be any different for people and things? Thus, when the time comes and things get exuberant and flourish, accept it. And if the time changes and the prosperity and lushness fade, you should be determined to let it go. When the flower is about to come, can you reject it and make it not exist? I want to hold the flowers when they go, but indeed, it is not possible. If you still intend to make it stay at all cost when you can't, you are deceiving heaven. How vile and filthy would it be?

The splendor of Satsuki azaleas is incomparable to other flowers when they bloom. However, even when the flowers wither, they do not fall off and dry up on the branches. So there is no uglier flower than them after they have withered. Shin Gyeongjun says that it is natural that everything flourishes in spring and all things wither in autumn, so we should not go against this.

And he seems to have thought of himself. He would have thought that if a man could not accept the old age, it would be just like Satsuki, withering and hanging ugly on the branches until the end, but he did not express his thoughts directly. But if you read the text, you will understand the meaning.

This article was written when he was 33 years old, so he seems to have already learned to accept growing old at that age. Kim Changheup, a writer in the late Joseon period, once said that forgetting agedness is senility, and lamenting agedness is ugliness.

This session, we looked at Japanese azaleas and Satsuki azaleas. Next session, we'll talk about oddly shaped stones.

2-5 Oddly Shaped Stone (Suseok)

Hello, students. Last class, we looked at Japanese azaleas and Satsuki azaleas. This class, we'll talk about oddly shaped stones.

In addition to 16 species of plants, Yanghwasorok has an additional item called goeseok (oddly shaped stone). This is because the stone was raised in a flowerpot during the Joseon Dynasty. Goeseok is called suseok these days. Earlier, we saw a painting, drawn with Kim Hongdo's style, has a stone pot along with chrysanthemums, and Shin Yunbok's painting also has the stone called Taihu stone next to crape myrtles. Also in Gang Sehwang's painting, the stone is placed in a pot along with plum blossoms.

After introducing the famous oddly shaped stones of China, Yanghwasorok introduces chimhyangseok as the stone of Korea. Chimhyangseok is produced behind a temple called Gyeongcheonsa in the south of Gaeseong. It is shaped like rugged mountain peaks or sheer cliffs, making a small landscape. Moreover, it has fine holes, and if you put it on a porcelain tripod cauldron like a flowerpot, the water rises to the top and moss grows on it, which makes it a masterpiece.

It is easy to process like Taihu stone, so I guess they cut holes in it, carved the shape of a deer or Buddha on it, or planted sweet flags or other flowers in it. However, if you process it like this, the holes are blocked and the water cannot go up, so the gloss disappears or the rock cracks.

Because of this, the Taihu stone, which is presented in Shin Yunbok's painting, was considered the best in China, but in Joseon, chimhyangseok was the best. In Yanghwasorok, Shin'gyeseok and Ansanseok are also introduced, but it says that Shin'gyeseok from Singye, Hwanghae-do, does not absorb water well, and Ansanseok from Ansan, Gyeonggi-do, is red and mixed with sand, so it can't be considered as a masterpiece.

Unfortunately, however, chimhyangseok ran out around the mid-Joseon period. They must have needed a substitute. In Imwongyeongjeji by Seo Yugu, which succeeded Yanghwasorok, a popular oddly shaped ston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re introduced. Deokjeokseok, produced in Deokjeok Island in the West Sea, has wrinkles or scale patterns because of the waves. Some of them are tens of meters high, and good for decorating the garden as an artificial mountain.

Also, Surakseok from Mt. Surak is said to be hard and glossy, absorb moisture, and has a dark blue top. Geumgangseok from Mt. Geumgang has a black pattern on a white background, with a shape like a flower, a bird or a tree, so it is good to put on a desk. And nangganseok is sometimes hung in the fisherman's net because it is in the mudflat or underwater of the southwestern sea, and it has a spiral pattern and a small hole mark, the color is grayish white, and it makes a clear sound when tapped. Now, even the names of these luxury stones have disappeared.

You can see chimhyangseok in Japan now, but you can't find it in Korea. After confirming through the Internet that Daisen-in Temple of Daitoku-ji, a garden built by Sen no Rikyu ordered by Toyotomi Hideyoshi, has Chimhyang-seok, I went there in 2008 to see it. The picture you see was taken by myself at the time.

I guess this chimhyangseok might have been take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t is a famous place for karesansui (dry garden), of which Japan is proud. There is a commentary that a chimhyangseok was placed on a vase containing water and flowers were planted on it. In this regard, it is different from Joseon's proud stone, which absorbs water to the top and remains moist at all times. Now Daisen-in's stone is on dry sand.

As you can see in the picture, a rock shaped like Three Gods Mountain was erected above, and sand was laid under it to represent stream water, but there's not a drop of water. We can guess that originally, water flowed out of the Three Gods Mountain in the back, soaked the stone, and went up to the top by osmotic pressure, so that flowers or trees were planted there. We can investigate further to see whether a vase was placed on top of it instead of planting flowers or trees as it turned into a dry garden.

Gang Huian objected to adding artificiality, saying that water would naturally hydrate to the top and moss would stick beautifully when the stone is left alone, but it seems that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chimhyang-seok disappeared, it was quite common to decorate stones. This is the case with the oddly shaped stone in the writing of a 17th-century writer named Oh I-ik.

According to him, there was an oddly shaped stone with a clear shape of peak and valley, and he planted a maple tree, a chrysanthemum, and an orchid in its cracks and placed it in a small pot. When he poured water into the pot, the water rose from the valley to the peak, and the maple, the chrysanthemum, and the orchid became exuberant.

Also, around the same period, a man named Han Taedong artificially processed hard stone, not out of chimhyangseok, to make oddly shaped stone. When he got a stone with a well-shaped peak and valley from a relative, he put it in a pot containing water, put various miscellaneous flowers, and put it in a pot containing water, but the hard stone rejected water and dried up and so did the flowers.

So, he knocked and pecked the stone with all his might to soften the material, and three holes were made inside to allow water to flow upward. Then he coated it with sweet flag and stone powder pigment and planted several kinds of grass here and there on it. And he boasted the oddly shaped stone that he made, saying that everything had to be cultivated meticulously. I don't know if it may still be possible.

Since the 18th century, Chinese styles became very popular in Joseon, and stone culture was also affected. It was at this time that the craze for importing Taihu stone, which is seen in Shin Yunbok's painting, appeared. Taihu stone is a kind of limestone that has a strange shape because it is easily weathered and eroded.

King Jeongjo, when he was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got a piece of Taihu stone, which was not that big, and placed it in the backyard of Gyeongbokgung, and he even left a writing about his joy, which indicates the extent to which Taihu stone was valued at that time. King Jeongjo boasted that he had washed the Taihu stone clean and placed it on a flowerpot beside antiques, and enjoyed its clear and quaint grace that he had learned to appreciate. "Taihu stone is an outstanding stone in the world, and a large one can be used to decorate a garden or a building and a small one can adorn a desk. It goes well with both the water and the mountain."

Later, in the 19th century, there were quite a records of this Taihu stone in the house of the prestigious family. It must have cost much because it was bought in China and brought in Korea in a cart. So, in Joseon, the stone called suposeok was used for landscaping as a substitute for Taihu stone. Suposeok is also called sokdol in Korean, or buseok.

According to Suposeok Journal by Yi Hoebo, a 17th-century writer, it is mainly found on the beach, shaped like a mountain with pointy peaks, very light and has so many pores that water flows through it. Although Yi Hoebo was not famous as a scholar from Pungsan of Andong, his garden was decorated with suposeok, so we can guess that it was popular even in local provinces during this period.

It is introduced as a local specialty in Donggukyeojiseungram (Geographical Conspectus of the Eatern Kingdom), and it seems to have been valued much early on because it was sent as a tribute from Japan. It was very popular in the late Joseon Dynasty to put this stone on a pot and appreciate it.

In the 18th century, Shin Wi once wrote a poem saying, "Each house has Supo-seok in a large pot like a mountain, and pairs of them were coupled to face each other on a flowering railing. In the past, I also enjoyed following the custom, so I casually threw it in the rain and it is stained with moss." Shin Wi was the best poet of the time, and he was also a person who carried stones in carts instead of people when he returned from his travel to China as an envoy.

Naturally, if there is no genuine masterpiece, fake ones might well be made. Bak Seonsu, a younger brother of Bak Gyusu, who led the academia in the late 19th century, was dexterous, and he made Taihu stone by lumping soil together, and painted it blue. He was also said to forge ancient bronzeware, so his fake Taihu stone must have been as elaborate as a real one.

Growing flowers is a horticultural skill, but studying flowers for insight is the way of Joseon scholars. You can practice the profound concept of gyeokmulchiji (to derive knowledge by confronting things), while looking at the flower tree. In addition, if you do not just look at flowers, but go further and think creatively to add some grace, the flower viewing will be more elegant.

This is the end of my lecture on Yanghwasorok. Thank you.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2周 解读《养花小录》

2-1 菊花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古典新读》之韩国园艺与盆栽的古典著作《养花小录》课程主讲的李钟默。这节课是第二节课,将以"解读养花小录"为主题进行展开。

在上节课，我们了解了姜希颜的《养花小录》是一本什么样的书。现在我们来思考一下，在养花小录中是如何培养花和树木的,以及培养花和树木的意义是什么。

如前面所述，养花小录记录了17种花木和怪石，现在我们来重点看一下其中的菊花、梅花、紫薇、杜鹃和怪石这5种。并且，对《养花小录》进行扩张,让我们来看一下朝鲜时代文人对这五种花有何看法。

这幅画收藏在法国巴黎的吉美博物馆。这是去巴黎一定要参观的博物馆。据介绍，这里收藏了很多金弘道画的风俗图，这幅画也是金弘道的作品。但专家说，这幅作品虽然像是受金弘道的画风影响,但应该并不是金弘道亲自所画。尽管如此，这幅画还是很有意思的。

书生们正在院子里玩游戏。这幅画被称为《晚节争竞》。晚节，即晚秋，玩升卿图游戏的意思。升卿图是在盘里上写上官名后扔骰子,根据到达的地方晋升或降职,有时也会被流放的游戏。

这幅画描绘了朝鲜后期生活较好的房子的后苑风景。　　值得关注的地方有很多处。看起来像槐树的树在画的右侧,下面有四只鸽子在玩耍。18世纪左右，在汉阳都城，养鸽的热潮相当热烈。

据《太宗实录》记载,曾向作为使者前来的日本僧侣赠送过鸽子为礼物,16世纪有个叫朴英的人因为喜欢鸽子,17岁时去辽东购买回来。实学者之一的柳得恭曾留下了《鹆鸽经》这一有关养鸽的著作。他的朋友李德懋在《士小节》中曾记录鸽子发烧友的弊病很大。看着当时描绘汉阳的《城市全图》写的诗中出现了数十种鸽子。

并且下面还有一盆花。还能看见两个放有红色怪石的花盆。其中有石榴树。 石榴树是养花小录所探讨的品种。石榴是用来看花的，称为花石榴或海石榴。从波斯来的叫作安石榴,结出来的果实相当大。现在我们看到的都是安石榴。这幅画中的石榴也是安石榴。

石榴在怪石之间也是有原因的。. 因为石榴的石字是石头，所以石榴喜欢石头。 朝鲜时代石榴的品种有像盘松一样圆圆的，也有像檀树一样弯弯曲曲形成两三层的。

朝鲜时代的文人们最喜欢的花是菊花和梅花。首先来看一下养花小录中详细记载的菊花。

菊花也是君子之花。18世纪的文人李鼎辅说:"菊花啊，你度过了三月春风，在落木寒天独自绽放。也许傲霜孤节只有你一个人。从这句话中可以看出,一般的花都在在春天开,而菊花在霜降后开花，因此高看其气节。

李鼎辅是英祖时期历任大提学的著名的文人,足足留下了78首时调,在韩国文学史上名望很高。时调中也经常出现菊花和梅花。在李鼎辅的时调中，菊花的特征就是傲霜孤节。

傲霜孤节源于中国宋朝著名文人苏东坡的诗"荷尽已无擎雨盖，菊残犹有傲霜枝。"到了秋天,莲花的大叶会枯萎,但菊花会遭受霜冻,晚些时候开花。他称赞菊花战胜霜冻的高昂气节突出。

另外，菊花是黄花的代名词，同时也是儒学里所指的中正之花。菊花是不偏不倚的君子之花。正祖是朝鲜最伟大的君主之一，在1786年选拔奎章阁的检署官时，曾用黄色的菊花作诗，寓意选拔具有不偏不倚的中正思想的儒生。中国皇帝的服饰是黄色的，也是出于同样的意思。

喜爱菊花的另一层含义，是因菊花有实用性的药效。养花小录也提到菊花能够使人身体轻快，延长寿命，还能提神醒目。这里的菊花是指很小的黄色的甘菊品种。人们甚至还把甘菊晒干，当作枕头。据说对失眠有好处。中国的菊潭以拥有让人长寿的泉水而闻名。

菊花在春天可以用嫩叶和茎做野菜吃，夏天煮辣汤时也可以放进去，秋天还做菊花糕吃，在冬天将菊花晒干，既可以做成茶，又可以泡酒。让我们先看看菊花茶。

实学者李奎景编纂的《五洲衍文长笺散稿》一书详细介绍了菊花茶的制作方法。李奎景是前面短暂提及的李德懋的孙子,他编纂的《五洲衍文长笺散稿》在朝鲜时代百科全书中具有最庞大的规模。这里介绍了制作菊花茶的方法。

据说在甘菊的花苞开到一半的时候摘下，去掉其青色的花萼，用煮好的泉水加入蜂蜜喝比较甘甜，并且，当花已经盛开时，可以去除花萼，放入蜂蜜搅拌至湿润，再放到茯粉上滚动,倒入沸水短暂加热,然后倒入蜂蜜水中放入松子饮用。重阳节一般会用菊花蒸糕吃,也煎饼吃。并将此成为煮菊会。

协助正祖引领改革政治的蔡济恭曾这样回忆道。"每逢3月3或9月重阳节，会选个无风、天气温暖的日子,带领家里的妇女们带着锅坐在悬崖的岩石上,将石缝里的野花或菊花折断煮熟后做成年糕吃,煮艾草汤作为小菜。嘻嘻哈哈的，从早到晚乐趣无穷。”

在家庭的郊游中，菊花糕占据了一席之地。蔡济恭的家位于明德洞即现在的长位洞，据推测是在现在栽培北首尔梦之林的地方。住在这里的蔡济恭为了女性去郊游,那时吃的食物是菊花糕。

菊花还可以野菜吃，叫做黄花菜。前面介绍的李奎景的五洲衍文长笺散稿中写道:"秋天摘下甘菊花，去除花萼和花蕊，放在木制的小盘上，用清水轻轻洗净，将松叶酒像沾露水一样稍微使其湿润，再用绿豆粉撒在花上，涂上花瓣。将水倒入锅中，稍微用小火加热后捞出，防止结块。再把花瓣一个一个地泡在冷水里捞出，再放入食醋以及各种调味的食材搅拌着吃。”

养花小录中有关菊花的美德主要是通过中国文献进行了阐述。

《养花小录》中记载了栽培各种菊花的实用性内容。首尔，养花小录对于栽培菊花的方法是这样介绍的。在我们前面所看到的吉美博物馆的画里，可以看到黄色的菊花和红色的菊花并排放在花盆里。养花小录或是收纳养花小录的山林经济，都提到若想同时赏玩多种颜色的菊花，可以在一个花盆中混合种植，若是花盆较小，只种一种更好。

山林经济是活动于18世纪前后时期的学者洪万选的著作,在前面所介绍的林园经济志之前,写下了有关知识分子隐居山林生活的经济方法的书。这里的经济,与今天的经济(economy)的含义略有不同,意思是经略世界,救济百姓。这本书也可以说是继承了姜希颜的《养花小录》。

菊花出根时，要进行施肥，山林经济中记载道，要取沟里的肥土，挑出石头、瓦片，碾碎后晾干。然后蒸熟,将麻渣混合放入花盆中,不仅会很好地生长,而且不会生虫子,如果出现发黄的叶子,将韭菜汁液倒入根部,就能使其恢复绿色。另外，阳光照射过多会导致叶片发黄或发红，淋雨过多会导致叶片发黑，这时用这种方法就可以了。

并且，菊花可以插枝，将菊花枝插得密密麻麻的，放在阴凉处，慢慢浇水即可。花盆用土花盆就可以，开花后可移入高档的陶瓷花盆。

但在朝鲜时代的文献中，叫做三色菊、四色菊、或是五色菊的菊花随处可见。《养花小录》中提到，将黄色和白色两种菊花分别剥去一层皮，用麻的外皮放入中间将它们结合起来，那么开的菊花就可以一半是黄色，一半是白色。还介绍了嫁接各种颜色菊花的方法。

甚至在18世纪文人李钰著述的 “白云笔”中， 也有老人像涂漆一样制作并销售黑菊花的故事。这个时期，汉阳的商贩们一边走一边贩卖花木。 从这篇文章中可以看出，汉阳人在院子里放了各种菊花花盆。《白云笔》一书也记载了像养花小录一样栽培多种花木的方法。

朝鲜时代的菊花品种非常丰富。《养花小录》，中国文献有35种菊花，朝鲜有20种菊花。其实现在更是如此，朝鲜时代的花有很多外来品种。姜希颜记载道，朝鲜有名的花都不是产自朝鲜,是高丽忠肃王从元朝回来时带回的多种多样的花。

乌红、燕京黄、燕京白、闺深、锦红、银红、鹤顶红、笑雪乌等菊花，黄牧丹、白牧丹、赪红牧丹、洛阳红等牡丹。还有像重叶山茶这样层层开花的山茶花，重叶梅这样层层开花的梅花，还有绯桃，粉桃和雨桃等各种颜色的桃子。此外，瑞香花、青葡萄和黑葡萄等也都是从元朝引进的，直到朝鲜初期为止，成功栽培达到了这种程度。

有很多第一次听到的品种，而且大部分是现在都已消失的品种。现在我们周围所看到的花树大多来自国外,在朝鲜时代更是如此。例如，现在常见的水仙花和凌霄花都是19世纪初期从中国引进的。元朝时期引进的具有特殊名字的菊花中，虽然一部分在朝鲜后期的文献中有所记载，但现在已很难看到那种菊花。

但到了18世纪，菊花的品种变得更加多样化，富裕的家庭争相种植优良品种的菊花。丁若镛曾说，加平某隐士的家里种植有48种有品味的菊花。正如我们上节课所说,丁若镛曾居住的明礼坊家里有18盆菊花盆栽,想必应该是品种各不相同的菊花。另外,在因喜爱花而以'花菴'作号的柳璞的《花菴随录》中记载带，开黄花的有54种，开白花的有32种，开红花的有41种，开紫花的有27种，加起来共达154种。

柳璞的《花菴随录》一书是已故李相熙部长最珍爱的书,据说曾为了买这本书花光了几个月的工资。李相禧部长曾以庞大的规模著述过3本名为《通过花看韩国文化》的书。他发掘资料并亲自撰写著作,使韩国花卉的文化史更加光明。正是在这本书里，据说在柳璞生活的英祖年间有154种菊花，真是令人惊讶。

另外,创造秋史体的大学者金正喜看到当时流行的菊花多达163种,做出了这样的诗："虽然菊花品种多达163种，但听说鹤翎在各种菊花中排名第一。　即使在倒塌的墙壁上，也依然神采奕奕，在秋风白露中锤炼出意志。"

在超过百余种的菊花中，18世纪以来最受朝鲜文人喜爱的品种便是鹤翎。18世纪以来，在朝鲜流行的新菊花中，也有从日本引进的，特别是白云朵非常有名。无论是鹤翎还是白云朵，都是花朵又大又白的最高级菊花。白云朵原本被称为新罗菊,在朝鲜时代消失后,日本好像又重新引进了类似的品种。

下面来介绍一下，养花小录中没有出现的后世菊花赏玩的方法。赏玩菊花的风流被称为菊饮、黄菊饮、赏菊饮、泛菊会、观菊会、赏菊会等。菊花盛开时,和亲近的人一起品酒是朝鲜文人的风流。更有雅致的事情是深夜把菊花花盆放在灯前，用朦胧的照明来赏玩。

朝鲜中期的文人河受一曾在菊花盛开的阴历10月5日，与叔父和孙子们一起在灯前放上菊花盆栽，欣赏作诗。朝鲜后期委巷诗人朴允默在灯光下欣赏菊花的影子，并说道:"　灯下菊花影斜斜，玲珑生动美如画。可笑，陶渊明还是没有韵味，当时不知道半夜赏花。"

作为参考,何受一是晋州出身的文人,是庆尚道公认的学者。另外,　朴允默在正祖和纯祖皇帝时期担任奎章阁的下级官员,并作为诗人名声大噪。诗很有意思。虽然一提到菊花人们就会想到陶渊明，但陶渊明并不懂得赏玩菊花的影子，所以才会嘲笑他。

特别是大学者丁若镛也巧妙地实践了　"菊花影子游戏"，这在《菊花影子游戏》的文章中进行了详细的介绍。

清除衣架和书桌等各种杂乱的东西，纠正菊花的位置后，离墙稍留出一点距离，在适当的地方放置蜡烛点亮。这时，奇异的纹样和奇特的形状会突然布满墙壁。墨畵)를 펼쳐놓은 것과 같았으며,
最近处的花叶交叉，枝叶密排整齐，宛如一幅水墨画，其次近的像是翩翩起舞一样晃动，犹如月亮从东坡升起时，院子里的树枝映在西边的围墙上一样。最远处的朦朦胧胧，仿佛细细的云彩或晚霞在逐渐隐约消失，漫不经心的海浪突然闪现，忽明忽暗。

清除了衣架和书桌等各种杂乱的东西，在墙间适当的地方放置蜡烛照亮菊花。菊花的花、叶和茎根据距离的不同,呈现出有趣的差异,演绎了一幅水墨画。怎么样？ 我们前面说过，在观赏莲花和梅花的时候，朝鲜的文人下了很多功夫，在这里同样也能看出来。

在这节课，我们对菊花有所了解。下节课我们将探讨梅花。

2-2 梅花

各位同学，大家好。在上节课，我们了解了菊花。这次我们来探讨一下梅花。

这幅图是姜世晃的《无限景楼清供之图》。 姜世晃的号是豹庵，是享有盛名的文人画家。无限景楼是姜世晃在南山所建的房屋名称。 这是在能看到无限风景的无限景楼里,能够让人净化心灵的画。书案上摆有书、毛笔、砚台、如意等物品,左侧的花盆里梅花与怪石并列摆放着。这是朝鲜的时代文人所向往的书房风景。现在让我们来了解一下这幅画中的梅花。

在中国，有关梅花的著述，宋代的范成大的《范村梅谱》最为广为人知，在《养花小录》中也引用了这本书，称梅是 “尤物”，即"有瑕疵的东西"。"尤物"一词是出自春秋时期晋国叔向的母亲曾说:"甚美必有甚恶。夫有尤物， 足以移人； 苟非德义,则必有祸。”在这里代指美丽的女人。因为东亚地区非常喜爱梅花，所以出现了这样的话。梅花在朝鲜也是文人们最喜欢的花。

梅花斜斜地生长,以稀疏奇特的老枝最为珍贵。因为只有这样，才会凸显其雅致，提升其格调。但是在幼树上嫁接新的枝干过一年就会长出嫩叶,树干径直向上延伸生长。这叫做气条。现在梅花也被称为梅子树。这只追求收获梅子的利益,没有雅致或格调。梅子树因生长在地面太肥沃的地方,所以枝条像刺一样发枝,花也开得很密。

画梅花时有一句话叫"气条莫安花"，意思就是说，在树势凋零的干枯枝条上稀稀疏疏地开着花，才有梅花的格调。李德懋留下了《轮回梅十笺》的著述，记载了人工制作梅花的方式。在这本书中说道，制作树枝时,要交叉成丫头"女"字型,但树枝不能向上伸展。

轮回梅是轮回的意思，当梅花开花时，蜜蜂会吃花粉做蜂蜜，人们再用蜂蜜中剩下的蜂蜡做人工的梅花，因而调侃梅花也会轮回。李德懋就是这样制作销售了人工梅花。为了和朋友们喝一杯，还写了一份出售梅花的文件，放在了他的文集里。真羡慕他的雅致和幽默。

正如此，在自然状态下，梅花不会出现凋零和干枯的风貌。当然，在韩国梅花冬天也不会开花。姜希颜说有雅致和格调的梅花都是人工添加的。梅花嫁接时，先将栽在花盆上的小桃树挂在梅花树上，把桃树和梅花接触部分的皮剥下来并合并起来，再用活的藤蔓结实地包好。

然后,使其气息相通,等待外皮相互粘连,然后从原来的梅花上摘下来,这被称为倚接。将花盆放在半晒半阴的地方,经常浇水的话,彼此贴着的树枝就会变成斜躺的老梅花的形象。

这并不是结束。当花蕾附着在枝条上时，将其放入暖房，用热水喷洒枝条和根部。 在火炉上烧木炭放在旁边，以免受凉。那么在冬至前，鲜花盛开，清香会弥漫整个房间。山林经济中说，如果管理不当,在花盆结冰不开花时,可以将开水装在瓶子里放在花盆上。

虽然观赏寒冬雪中盛开的梅花是一件很有雅致的事情,但实际上梅花除了部分岛屿地区之外,直到早春才会开花。为了让梅花在农历春节前开花。所以这样嫁接后，放在在房间里养。

但是，如果树太老了，没有枝条，没有长出花蕾的话，可以把它搬到朝阳的地方种植，让生长的根长出来。花盆中的梅花，在落花之后要把它重新放回窝棚内，以免受寒。若是遇到寒气，不仅不能结果,而且树枝也会枯死。

虽然看似简单，但实际上让梅树这样开花并不容易。著名画家金弘道以30两的价格出售了自己的画作,购买了一个梅花盛开的盆栽花了20两， 当时的30两是可以买一栋三间的茅草房的高价了。由此可见，寒冬开放的梅花是很难培育出的。

18世纪文人郑克淳的《两棵小梅花》的随笔很有意思。郑克淳并不广为人知,文集在韩国内也没有流传,只有美国伯克利大学东亚图书馆收藏了唯一本。这里记载了梅花嫁接的故事,可以得知姜希颜的方法得到了进一步发展。 下面我来读一下。

朝鲜人虽然百种生疏,但值得一提的是养梅花。梅花清新、雅致，高尚,但在花中,其树桩本身与其他花木并没有什么不同。如果树桩不雅观,就无法称其美丽,因此喜欢奇异的人们翻遍山谷,寻找桃子和杏树枯树,将其砍断,只留下树桩和瘦削的根。在历经了风雨的磨砺和虫子蛀蚀之后，倒挂在倒塌陡峭的悬崖上，斜压在古老的田地里杂乱的石堆上，形成了蜿蜒的坑，在其中间钻个洞用像乌龟、蛇、怪物模样的东西拿来嫁接。当雅致的花从平凡的枝条上哗啦啦地落下时，在其上面进行嫁接后，再栽到土花盆里。在天凉之前放在一个较深的房间里，如果担心旺盛的精力分散而无法开花，就制作一个小的梅盒将其装起来。绝不要让灰尘和烟雾污染到外面，让嫩芽在里面生长。鼓励如果有合适的场所,可以移走浇水,并按照适当的栽培方法操作。因此，当天寒地冻的时候便会开花。就像神仙或魔术师用魔术制造的一样。 啊，真是神奇。

梅花虽然好看，但树桩本身与普通花木并没有什么区别。为了让树桩带有奇异的风味，将桃树或杏树变成弯曲的模样后与梅花树进行嫁接。然后在房间里做一个小龛室来保护梅花花盆，这叫梅閤。梅花的龛室梅閤，又称梅龛，梅阁， 梅屋。

正如郑克淳所说的，作为韩国的独特之处，梅閤或梅龛的纪录在中国是很难见到的。在韩国，这些术语从17世纪左右开始出现，到18世纪左右变得非常频繁。从姜希颜的时代开始进一步发展,郑克淳说朝鲜人的梅花栽培是世界第一。

这里所示的画是18世纪画家石塘李维新的作品《可轩观梅》。现在这幅画被收藏在东山房画廊里。在李维新的作品中这幅画尤其备受瞩目,正是因为梅花。这是下雪天聚在家里欣赏梅花的画。

朝鲜的书生们在寒冬梅花盛开时，会叫来朋友一边欣赏梅花，一边饮酒作诗。这种享受雪中梅的酒席叫做梅花饮。18世纪的文人金钟秀曾就在梅花饮中留下精彩的文章。 他和前面所说的李胤永和李麟祥也都是亲密的好友,果然是有高尚的爱好。他是清风金氏名门出身，是正祖皇帝的亲信。虽然官职已升到从二品的奉朝贺，但年轻时以清流自居。他留下的文章也非常清新。

冬天已经过去一半了，天气刚好不冷。一会儿下雨一会儿下雪，到了晚上月亮又升起来了。爬上楼阁，眺望着河水，拿着拐杖在庭院里散步。围坐在火炉旁烤肉。 面对面地唱歌。各自做自己想做的事情。龛室里的小梅花，来时未绽放的花蕾多如繁星。 到了走的时候开了四五朵花。三天来， 只有以前胡说的故事成为了话题中心， 一句诗都没做，也许是怕有损真意吧。

与金钟秀生活在同一时代的燕岩朴趾源也和朋友们在下雪天举行了暖炉会，面对着火炉烤肉，整个房间都被烟熏得热烘烘的，葱蒜味和肉的膻味沾满了全身。从这一点看，和我们今天的烤肉肉店风景似乎没有什么不同。

金钟秀的朋友李麟祥批评说,一到寒冬,就邀请客人和朋友来聚会,围着放有羊肠的火炉和毛毯前的煎锅进行梅花饮,酒味和烤肉的烟气喷涌而出,每个位置的人都汗流浃背。况且本应冬天盛开的梅花,因为炽热的火炉的火势,十月就已经开花。因为要掩盖这种烤肉的烟气,所以对于有清新节操的梅花来说,暖炉会是一种难以忍受的屈辱。

如果说在梅花下烤肉不太好，那喝茶也不错。朝鲜中期，李纯仁说:"朔风在暴风雪中吹打窗户，穿着葛衣，围着火炉坐着煮茶。因茅屋三间，虽然没有什么好东西给客人，但你不来这里欣赏一下梅花吗？"这种好诗背下来也不错。李纯仁擅长唐诗的清新的风格，此作品亦是如此。是值得背诵的作品。

对于种植梅花时过度加入人工,很多文人对此持批判态度。姜希颜的后代中，在宣祖皇帝时期叫个姜沆的人。

姜沆在壬辰倭乱时被日本俘虏，幸运地回到了朝鲜，以日本留学的学者而为人知。仔细阅读宣祖姜希颜的《养花小录》,在《养花小录》中的梅花很自然,但最近人们骂他虐待梅花。姜沆批评说，将笔直的树根弯曲，折断了长枝，不让其长高，粗细不到一尺，并让其斜卧，使梅花的天性已经消失。并且，过分精心地计划让梅花快速开花，将梅花栽植在瓦盆里，放在暖炕房，浇热水，用火炉给它取暖，使其在冬至前开花，再向别人炫耀；召集好事者聚集，梅花最终作为了与权贵交往的手段。

他指责说，虽然喜爱梅花的意义是在于淡泊和节操,但人们却只追随奇异。现在不如朝鲜时代会养梅花了，姜沆如果看到现在，估计会很满意吧。但是朝鲜时代的文人们争先恐后地制作这种梅花，所以正如前面所说，梅花是个"尤物"。

这节课我们了解了梅花。 下节课我们来探讨一下百日红。

2-3 百日红（紫薇）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谈论了关于梅花的内容。这节课我们来了解一下百日红。

这是朝鲜后期风俗画大师申润福的画。这是全鎣弼先生费尽心思所收集的美术作品,收藏在涧松美术馆。这幅画是被指定为国宝的《风俗图贴》中的一张。 美术史家们将其取名为"少年剪红",意为年轻人摘采红花。在上端写着:“叶浓堆绿，繁枝碎剪红”，这里的红花是指百日红。

年轻人正在诱惑女性。院子里摆放着巨大的太湖石，看来好像是非常富有的人家。太湖石是18世纪从中国进口的，所以一般的家里都见不到。还有两株百日红正在开花。百日红在当时的汉阳也是很难培育出来的高级品种。

百日红又称紫薇花分为草本百日红和其他木百日红。木百日红减少了就变成了紫薇树。只要一模树枝中间，树枝就会哗哗抖动。因此称其为“怕痒花”，也就是怕痒树；又因没有树皮，躯干太滑，连猴子都滑下，而称其为“猴刺脱”。想到这样的别名,在前面所看到的申润福的画中,感觉诱惑害羞女人的那个年轻人会失败。

百日红是一种美丽的花木，一到夏天就会红遍南方大地三个月以上。百日红也可以养在花盆里，但现在种在花盆里的百日红已经很少见了。养花小录里介绍了在花盆中栽培百日红的方法。

据姜希颜说，虽然朝鲜初期的官公署内只有几棵芍药，但百日红在岭南的近海地区随处可见。因为风和气候比中国晚要很多,百日红在阴历5月到6月之间才开放，7月到8月才停止,所以和现在几乎没什么不同。

此花像丝绸一样美,像晚霞一样将院子映照得很美丽,让人炫目,所以在都城内高官显贵的住宅里种下了一丈多高的树。梅子成熟时下的雨叫做梅雨,这时把百日红扦插在阴凉处,花就会长得很好。用在海边地区生长叫作海竹的竹子来支撑，如果做成柏样榴的模样，就会很美丽。柏样榴是石榴的品种，树干像红松一样挺拔，越往上越细。据说花盆是使用瓦器。

朝鲜时代的百日红与刚开完就谢的普通花朵不同,整个夏天都在开放,因此受到了书生的喜爱。18世纪湖南出身的实学者申景浚于1744年，正值其33岁时回到了故乡淳昌，隐居在从朝鲜初期申叔舟的弟弟申末舟处所继承的叫做 “归来亭”的家中。挖了池塘，在里面设有三个小岛，聚集了奇异的岩石，在种下各种花之后，将其命名为"淳园"，并创作了名为《淳园花卉杂说》的随笔集。

这篇著述也是养花小录的重要参考文献。申景浚在淳园花卉杂说中,关于百日红留下了自我省察的学习材料。 下面我来读一下。

所谓的节度，就是一种无止境的方法。人的声音没有节度，若只想用急切的声音呼喊，便会哽咽，走路没有节奏，若只是飞快奔跑，就会出汗并气喘吁吁地摔倒。池塘若没有节度就会溢出来，仓库没有节度就会见底。没有节度却能无穷无尽这是不可能的道理。花瓣大就会容易凋谢，因为花瓣没有节度。
莲花、蓼、牡丹、芍药都是如此。

申景浚说,世间万物之所以无穷，是因为有控制自己的力量。
这篇文章的核心词就是"节"。"节"就是知道什么时候停止，什么时候前进。 花开也要有节律，知道节律一朵一朵慢慢绽放，才能开很久。百日红之所以能开百天以上，是因为它是知道节度的花。

申景浚用百日红暗示了人的事。也就是说,比起过度的欲望,把事情一件件地做,最终会取得更大的进展。有关百日红的学习就是这样的。

这节课我们探讨了百日红。下节课我们将考察日本杜鹃花和映山红。

2-4 日本杜鹃花和映山红

各位同学，大家好。上一节课我们了解了百日红。 这节课我们来看一下日本杜鹃花和映山红。

首先我们来看一下日本杜鹃花。与杜鹃花相似的映山红也将放在一起讨论。

姜希颜记载说，日本杜鹃花进入韩国是在世宗23年（1441年）的春天。据说日本曾进贡过几盆杜鹃花，据世宗实录记载，1441年2月16日，日本曾在对马岛献上了土特产，因此日本杜鹃花是在那时的对马岛上首次进入朝鲜。

该品种作为单花盛开的单叶，拥有朝鲜常见开放的双层花无法比拟的美丽，并且花期持久。虽然世宗将其种在王宫的庭院中,不让其外泄,但由于世宗了成为姜希颜的姨父,所以姜希颜好像通过其他宗室的人求得了两株。

然而，姜希颜虽是花卉专家，由于不知道其栽培方法，便将一株种在花盆里，一株种在土地里，结果只有花盆里的顺利生长，从此，日本杜鹃花开始在宫殿和民间逐渐蔓延。

安平大君对日本杜鹃花的出名起到了很大的作用。安平大君是世宗的儿子，在与首阳大君争夺王位时被诬陷为谋反而死的悲惨人物，但在事件发生之前，所谓的"死六臣"等当代最优秀的文士们曾与他家往来，他家叫做"匪懈堂"。也是以 "寿圣宫梦游录"而知名的小说《云英传》的空间。寿圣宫就是匪懈堂这栋房子有48处美景，其中之一就是日本踯躅，也就是日本杜鹃花。
倭踯躅也是同样的花。

但只有与宫殿或王室有关的人才能拥有或看到日本杜鹃花，这一直延续到朝鲜后期。活动于18世纪后半叶一位名叫李献庆的人，在去平壤所作的诗中说道:"因为这是花中最贵的品种,所以在平壤以100两的高价出售。"以大米的价格为准，一百两超出500万韩元以上。在当时的这些钱，是连边境的房子都可以买到到的高价。

因此，所有花的首领被称为百花之冠领，也称花中之首，即花中第一流。18世纪也是如此，可见日本杜鹃花是多么珍贵。朝鲜中期有个人是驸马的孙子、宰相的女婿，喜爱奇花异鸟,其家里有世宗时期用金属活字发行的《资治通鉴纲目》。现在是被指定为宝物的书。邻居的书生非常喜欢这本书,甚至拿着日本杜鹃花盆栽去换了这本书。

日本杜鹃花就是这种花木。因此，古人确实值得作为学习的对象。以16世纪以《青白吏》而闻名的李济臣留下了有趣的随笔。

家中有杜鹃花，从日本来的有4棵。有个人说要在初冬时用稻草或草席将其包裹，待第二年寒食时再解开，于是就照他说的那样做了。今年春天家里有事，草席不够，于是提前解开了一个盖杜鹃花的草席。到了暮春时节，虽然三株杜鹃花已都整齐开放，而提前解开的那株，直到春末霜降都没能整齐地盛开，到后来才陆续地依次开了花。别的杜鹃花连半个月都没欣赏到就谢了，而这株杜鹃花从三月开到闰月，一直盛开到端午。美丽的叶子和绿色的枝条变得更加华丽，来观者都觉得奇特，从未有过如此诧异。由于提前解开，所以被霜冻所压抑，又由于被霜冻所压抑，从而依次绽放。因为是依次开放，所以持续了很久。若不是提前放开，又怎会受到伤害呢，若不是受到伤害，又怎会长久呢？只是所幸，其根植于土地，真正的品性没有受损。虽然有清冷的霜降和寒风,但不足以使其严重生病,而正好产生了让它花期持久的方法。进退兴衰的道理实在无法得知啊。你怎么看呢？感到诧异的人高兴地说："你又在这棵树上做了一次'观物'啊！"

李济臣家里有4棵倭踯躅,按照周围人所说,在初冬用草席包好,以免冻死,但在早春又因为需要草席,所以提前解开了一个。此后,晚春时其他杜鹃花已经整齐地开放,但提前解开草席的那株杜鹃花一朵一朵地依次开花,花期持续了近3个月。因为受到了寒气,所以生病,但又因此花反而开得更加漂亮。事物的道理实在难以得知啊。

因为如果天气太冷的话，花可能就干脆不会开了，但若是偶然遇到点寒气，也许会开出奇异的花朵。朝鲜学者们的学习方法中有一种叫做"观物"的方式。就是观察事物,领悟其内在的真理。通过看花进行这样的人生学习，这就是古代书生。

但是，在有些词典中，把日本杜鹃花和映山红认为是同一种树，但事实并非如此。18世纪文人金昌翕说:"我原本以为我的映山红是天下独一无二的花，但没想到还不如大哥家石阶旁的倭踯躅，一旦绽放红色的霞光，整个村子就会热闹起来。"因此，映山红虽然美丽，但似乎不如日本杜鹃花。

前面所介绍的申景浚的《淳园花卉杂说》中留下了更详细的记录。申景浚说，映山红的花朵形状和颜色与倭踯躅相似，但稍小一点。在灿烂的光线下，站在山脚下，漫山尽染，呈现出红色，因此被称为映山红。

并且，申景浚说，映山红也是在日本生长的，燕山君派人船运过来，但回船来到湖南西海岸时，燕山君却已经废位了，所以湖南人拥有了很多这种花，因此也叫燕山君喜欢的映山红。

从《燕山君日记》来看，燕山君非常喜爱映山红和日本杜鹃花等花，这与暴君的形象有些不同。只是申景浚的这篇报道与事实有些不符。

根据燕山君日记，1505年1月26日在宫殿的后苑种下了万株映山红，并指示之后对种植的数字进行报告，并且由于熟知映山红的生理常规，在树荫下会生长得很好，因此吩咐在土地里进行种植的时候，要先挖地、盖窝，以免其遇冷就枯死。不过，燕山君最喜爱的花，还是映山红。

有趣的是，此前《成宗实录》中提到，1471年11月21日，从掌苑署呈上了一盆映山红盆栽，成宗说:"冬天开花是出自仁威，而且我不喜欢花卉，下次不要再送来了。"成宗不喜欢违背自然规律，在冬天通过人工让花朵开放，这后来成为警戒君王玩物丧志的典故。

因此，明宗时期，以该典故为基础，掌苑署内有人认为在寒冬的温室中栽培花卉的百姓非常辛苦，从而建议停止栽培。从这些记录中可以得知，映山红在成宗年间以前就在王宫或掌苑署种植。

申景浚通过映山红学习，让他对衰老这一问题进行了思考。不愧是淳园花卉杂说中的随笔。下面我来读一下。

花虽然是华丽的品种，但凋谢时却不轻易飘落，干枯地粘在树枝上，颜色很脏。即使用手打也不轻易掉落。昔日的艳丽，何至如今如此肮脏？那朵花繁华茂盛，堪称美丽，然而，当它结束生涯是如此。岂会有比那繁华茂盛更甚的厌恶呢？啊，天地的繁华取决于春夏，天地不能让春夏常存在，于是便让秋冬凋零。更何况人又如何，物又如何呢？因此，当时机到来，繁华和茂盛产生时，就接受它，若是时机发生改变,繁华和茂盛消失,就应当决然地送走它。花若要来，能推辞让它不复存在吗?花若要去，就算想留住，也真是无法办到。若非要挽留无法停留的东西，这便是瞒天之事，那挽留和污秽又怎样呢？

映山红在开花时的华丽是其他花无法与之比拟的。然而，在花朵枯萎时，它们也不会从枝条上脱落，而是任其干枯。所以在它枯萎后，没有比映山红更丑的花了。申景浚说,春天万物繁荣,秋天万物凋落是自然的道理,所以不能硬与之违抗。

似乎是说着那番话想到了自己。他应该是想，如果不能接受年老，就正如枯萎的映山红丑陋地挂在树枝上，但并没有把这个事实说出来。读了文章，自然就能明白其中的意思了。

这篇文章是申景浚在33岁时写的,他在那个年纪似乎就已经领悟到了接受老去的道理。朝鲜后期文人金昌翕说，忘老是老糊涂，叹老是老丑。

在这节课，我们了解了日本杜鹃花和映山红。下节课我们将探讨怪石。

2-5 怪石（寿石）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讲了日本杜鹃花和映山红。 这节课我们来讲一下怪石。

养花小录在16种植物的基础上又增加了一项，叫做怪石。这是因为朝鲜时代的怪石是放在花盆里养的。怪石最近被称为寿石 。前面所说的以金弘道画风所作的画中有菊花和怪石花盆,申润福的画中有百日红，其旁边画了叫做太湖石的怪石。另外，姜世晃的画中怪石与梅花也并列摆放在花盆里。

《养花小录》在介绍了中国著名的怪石后，介绍了韩国的怪石沈香石 。 沈香石产于开城南边的敬天寺后面。沈香石呈现的形状是险峻的山峰或陡峭的悬崖,其本身就能成为小小的山水。再加上,沈香石上有细微的小孔,如果把它当作花盆放在三脚鼎形状的陶瓷上面,水就会上升到顶端,因此就会自然而然爬满青苔，这样就成了名品。

沈香石像太湖石一样容易加工,可以用刀钻孔,也可以雕鹿或佛像,有时还可以种菖蒲或花。但是这样的加工，反而会堵塞小孔，使水无法上升，因此导致光泽消失或石头开裂。

因为这点，中国喜欢申润福画中的太湖石，但对于朝鲜来说沈香石还是最好的。养花小录中虽然还介绍了新溪石和安山石,但黄海道新溪产出的新溪石吸不了水,京畿道安山产出的安山石色泽赤红,还夹杂着沙子,所以都无法成为名品。

但遗憾的是，沈香石在朝鲜中期就枯竭了。不得已才需要找替代品。徐有榘的《林园经济志》继承了《养花小录》，介绍了朝鲜后期流行的怪石。西海德积岛出产的德积石受到海浪冲刷，有皱纹或鳞纹，有数十尺大小，据说适合在庭院装饰人工的假山。

另外，从水落山出产的水落石，石质坚硬，有光泽，能很好的吸收水分，上半部分是黑色的。金刚山的金刚石，白底上有黑色花纹,适合做成花鸟或树木的形状放在桌子上。而琅玕石产于西南海的海滩或海底，据说偶尔会挂在渔夫的渔网里，有螺旋状的图案，有小孔印，颜色是灰白色的，敲起来会发出清脆的声音。而现在这种名品怪石连名字都消失了。

现在虽然在日本还能看到沈香石，但在韩国却已找不到沈香石。通过网络资料等可以得知，在丰臣秀吉指使千利休建造的大德寺的大仙院中有沈香石，为了观赏沈香石，我曾于2008年前往过此地。大家所看到的相片就是我亲自拍摄的。

不知道这个沈香石是不是壬辰倭乱时带去的。这是以日本引以为豪的枯山水而有名的地方。文中所附的注解写道，盛水的花瓶里放上沈香石，在上面种植了花。这一点与朝鲜引以为豪的沈香石将水分吸收到顶端，始终保持着潮湿状态的说法有所不同。现在，大仙院的沈香石放在干沙上。

从照片中可以看出，只是在上面立了形状像三神山的岩石，下面铺了沙子作为溪水的象征，根本看不到水。可以推测原先水从后面的三神山流出来，浸润沈香石，通过渗透压水上升到顶端，然后在那里种上花或树。随着它变为枯山水，是否将花瓶放在上面代替了种植花木，这似乎是需要进一步研究的课题。

虽然姜希颜说，沈香石要放置一段时间,才能让水分自然供到顶部,长出漂亮的苔藓，反对人工增添之事，但在沈香石消失的朝鲜后期,装饰怪石似乎变得相当频繁。17世纪的文人吴以翼的文章中出现的怪石就是如此。

据他所说，用一块山峰和山谷模样分明的怪石，在其缝隙处种植了枫树、菊花、兰花等，放在了小花盆里。据说,往花盆里倒水的话,水就从山谷上升到山峰，枫叶、菊花、兰花等变得生机勃勃。

同一时期，有个叫韩泰东的人甚至人工装饰了不同于沈香石材质的坚硬的怪石。他从亲戚那里得到了峰谷形状较好的怪石,将其放在盛有水的花盆里,插上各种杂花后摆置,结果怪石材质坚硬,排斥水,最终石头干燥,花也枯死了。

为此，他倾注了所有的心血,敲石头,钻石头,使材质变软,并在石头里挖三个孔,使水能够向上流通。在其周围种植菖蒲和石菜，中间还种了许多草。他还曾炫耀自己所做的怪石，并说所有的事物都要尽心培养。不知道现在还能不能实现这个技术。

18世纪以来，随着中国风在朝鲜大行其道，怪石文化也流行中国风。我们前所看的申润福画中的太湖石，在这个时期掀起了进口的热潮。太湖石是一种容易受到风化和侵蚀而呈现出奇妙形状的石灰石。

正祖在世孙时期求得了景福宫后院中并不大的太湖石后，甚至写下了充满喜悦的文章，可见这个时期的太湖石受到了尊贵的待遇。正祖曾将太湖石洗干净后放在花盆上，效仿清新古风的雅致，把古董并列摆放，炫耀自己观赏。并说"太湖石是天下奇石，大可以装饰庭院或建筑物，小可以装饰桌子。既适合水，又适合山。"

此后在19世纪,很多记录显示名门望族的家里有太湖石。太湖石是从中国购买后，装在大车上运过来的，所以费用应该会很高。所以在朝鲜，作为太湖石的替代，水泡石这一怪石经常被用于造景用。水泡石在韩语中被称为轻石，也称浮石。

据17世纪的文人李回宝的《水泡石记》记载，水泡石主要产于海边，其形状像突出的山峰，材质非常轻，石上有很多孔，可以通水。李回宝是安东丰山出身的学者,虽然名气不大,但据推测，正因他说用水泡石装饰庭院,这个时期的水泡石得以流行至各地区。

水泡石在《东国与地胜览》中被介绍为地方特产，在日本也曾作为贡品相赠，由此看来从很早开始就受到了尊贵的待遇。朝鲜后期非常流行将这种石头放在花盆上欣赏。

18世纪申纬曾写过诗歌:"听说家家户户的水泡石在大花盆里像山一样高，成双成对地正对着花草栏杆。以前我也乐于随俗，让其悠闲地淋着雨，任其布满青苔。"申纬是这一时期最优秀的诗人，也是作为使臣往来中国时，没有带人回来，而是将在中国找到的怪石装回来的人物。

另外,名品如果没有真的，就会出现造假。19世纪后期，引领学界的朴珪寿的弟弟朴瑄寿手艺很好，把泥土团起来制作太湖石，并染上绿水，据说连古代青铜器也一起伪造，他制作的太湖石以假乱真般精致。

养花虽是园艺的技术，但在这其中同时学习反省是朝鲜书生的学习方法。即使是格物致知这种较难的话，也可以试着一边欣赏花木一边说。同时,花也不能仅仅是观赏，进一步去思考如何才能使其增添雅致的话，赏花则会变得更加优雅。

到这里《养花小录》的课程就全部结束了。 谢谢大家。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 중 동아시아에서 국화가 사랑을 받은 이유를 설명한 것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5분

① 꽃의 황색은 치우침이 없는 공정함을 상징한다.
② 서리를 맞고 나서 피는 오상고절(傲霜孤節)이 있다.
③ 아름다운 여인을 이르는 우물(尤物)로 여겨졌다.
④ 감국은 꽃과 잎, 줄기도 먹을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국화의 황색은 오행(五行)에서 불편부당한 중정의 색깔이며, 다른 꽃과 달리 서리가 내린 후에 꽃이 핀다는 점에서 지식인의 표상이었습니다. 또 실용적으로 감국은 꽃으로 떡을 해먹거나 술과 차를 담아 먹으며 잎과 줄기는 매운탕 재료로도 애용되었습니다. '우물'은 매화를 이르는 말입니다.

02 다음 중 매화에 대한 설명으로 어색한 것은?

5분

① 매화를 접붙일 때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를 사용하였다.
② 매화가 한겨울에 꽃을 피우도록 화로를 사용하였다.
③ 한겨울에 매화가 피면 난로회를 열어 꽃구경을 하였다.
④ 윤회매(輪回梅)는 매화가 끊임없이 꽃을 피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정답 ④

해설 매화는 구불구불한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 둥치를 매화나무에 접을 붙여 화분에 옮겨 심었고 한겨울에 꽃을 피우도록 방안에다 감실을 만들고 화로를 피워 따뜻하게 해주었다. 꽃이 피면 난로회라 하여 화로에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면서 꽃을 즐겼습니다. 윤회매는 매화의 꽃가루에서 만들어진 밀랍으로 인공의 매화를 만든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03 다음에서 영산홍과 일본철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분

① 일본철쭉은 세종 연간에 처음 수입되었다.
② 일본철쭉은 영산홍과 같은 품종이다.
③ 영산홍은 연산군이 좋아하는 꽃이라 하여 연산홍이라고도 한다.
④ 영산홍은 말라비틀어진 채 가지에 붙어 있어 노추(老醜)를 경계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일본철쭉은 왜철쭉이라고도 하는데 세종 연간 처음 수입되었고 영산홍과는 다른 품종입니다. 영산홍은 연산군이 좋아하여 연산홍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꽃이 지고 나서도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04 다음 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분

① 괴석은 반드시 건조한 상태로 화분에 올렸다.
② 침향석은 가공이 쉬워 사슴이나 부처 형상을 새기고 꽃이나 풀을 심기도 하였다.
③ 태호석은 중국에서 수입한 괴석으로, 조선 후기 큰 인기를 끌었다.
④ 화산에서 나온 수포석도 조선시대 애용되었다.

정답 ①

해설 괴석은 물을 잘 빨아올려야 하고, 그래야 적절히 가공한 후 꽃과 풀을 심어 인공의 산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태호석, 제주도 등에서 가져온 수포석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따라서 ①이 부정확한 기술입니다.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됩니다.

주제

『양화소록』은 꽃과 나무, 바위를 화분에 재배하는 방법을 기술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인문학적 성찰을 담은 책이다. 강연에서 다룬 꽃나무와 괴석을 대상으로 하되, 강연에서 다루지 않은 성찰을 소개하고 토론해보자. (60분)

참고

소나무를 보고 옛것은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성찰하고, 국화를 보고 사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 연꽃의 경우 더러운 흙탕물에서 자라지만 깨끗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일상에서 자신이 접한 꽃과 나무에서 자신이 성찰한 바를 자유롭게 기술하고 다른 수강생의 의견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성찰한 바를 제시할 수 있다.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1, 2, 3), 이상희, 넥서스, 1998**

내무부 장관을 지낸 저자가 꽃과 관련한 동아시아 고금의 문헌과 자료를 망라하여 우리나라 화훼의 문화사를 본격적으로 정리한 고전이라 할 만합니다. 식물학적 지식에 더하여 한국인의 꽃에 대한 미의식, 꽃과 민속, 꽃과 문학, 꽃과 예술, 꽃에 얽힌 전설 등 문화사로서 화훼의 의미를 가장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 **화암수록, 꽃에 미친 선비, 조선의 화훼, 유박 저, 정민 역, 휴머니스트, 2019**

정민 교수가 이상희 장관이 발굴한 유박의 『화암수록』을 역주한 책입니다. 『화암수록』은 꽃에 미친 학자라 할 수 있는 유박이 평생에 걸쳐 저술한 화훼의 종류와 별칭, 습성, 열매, 향, 기를 때의 유의점 등을 자세히 적고 화훼의 등급을 나눈 후 짧게 평을 하였으며, 개화 시기를 월별로 정리하고 화훼와 관련한 시문을 수록했습니다. 이 책은 『양화소록』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원예서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야기가 있는 나무백과(1, 2, 3), 임경빈, 서울대출판문화원, 2019**

임경빈 교수가 1976년부터 2002년까지 일지사에서 출간한 총 6권의 『나무백과』을 3권으로 재편집한 책입니다. 식물학적 정보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 고문헌에 등장하는 나무에 대한 기록, 고사와 전설, 해외의 유사한 나무와의 비교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스케치와 사진이 함께 실려 있어 꽃과 나무에 대한 가장 폭넓은 지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시마중, 생활의 시학, 계절의 미학, 이종묵, 태학사, 2012**

이 책은 조선시대 운치 있는 한시를 계절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그 중 국화, 감나무, 단풍, 매화, 동백, 봄나물, 장미, 연꽃, 백일홍 등을 소재로 한 한시를 소개하여, 조선시대 화훼와 관련한 한시를 즐기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 **돌아앉으면 생각이 바뀐다, 격물과 성찰의 시간, 이종묵, 종이와 나무, 2016**

조선시대 문인들의 글 중에서 사물을 매개로 한 성찰을 보여주는 글을 뽑아 해설을 붙인 책으로, 이번 강의에서 다른 다양한 꽃과 나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

- **격물과 성찰의 공부**

- https://tv.naver.com/v/23988024
- '서울대 지식교양강연-생각의 열쇠'의 하나로 필자의 강연을 촬영한 '격물과 성찰의 공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룬 꽃과 나무와 함께 다른 사물에 대한 성찰의 공부를 다룬 것입니다.